



소식 · 안내

- 38 월간브리핑
- 43 시사상식
원숭이두창, 사이버 렉카
- 46 국회건의성과
국회 추경안 통과로
특별사료구매자금 등 금리 1% 확정
- 58 소가 사는 세상

특집

하반기 한우산업 기상도

- 60 하반기 한우산업 전망
자선우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66 하반기쇠고기 산업 전망
한덕래 부장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70 한우산업 이대로는
공멸 자초 위기
수급조절 적극 동참해야
박하늘 기자(농민신문)
- 72 소 이력정보를 활용한
2022년 한우산업 현황 분석
이호철 처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처)

기획

- 78 탐방
한우명문 농장의 비결
'청운농장'
- 청운농장 유병윤 대표
- 84 가정의 달 행사
2022 가정의달
한우할인판매 행사 '감사한우'
- 88 시·도지회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한우농가
권익보호에 집중
- 정인철 울산광역시지회장
- 90 우리한우판매점 ①
경북 영주 '축산식육식당'
- 95 우리한우판매점 ②
충북 청주 '수이재1928'

사양 · 컨설팅

- 102 원포인트레슨
송아지, 더욱 많이 보다 좋게
이종현 사무국장(한우협동조합연합회)
- 108 수의칼럼
한우 키포인트 이것만은 꼭!
소앤소 김재경 원장
- 112 축산과학원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처하려면
한우연구소 장선식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114 컨설팅
컨설팅을 통한
경산우의 계획적 도태
지옌디컨설팅

연재 · 정보

- 118 연재
한우 유통투명화 활동으로
한우의 가치
더욱 발전 시켜 나가야
유채민 주임(유통사업국)
- 120 리포트
해외 축산(육용우)
자조금 제도와 시사점
- 130 5월 한우동향분석
한우정책연구소
- 138 5월 한우정보



「선제적 수급조절」 「철저한 차단방역」

당신이 외면하면, 이 신호는 곧 꺼질지도 모릅니다.
생각은 그만, 이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 우리가 스스로 앞장 섭시다.



내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 모두 동참하는 한우 선제적 수급조절·철저한 차단방역

한우 선제적 수급조절 및 한우K-방역에 참여해주신 전국의 한우농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월간브리핑

2022년 5월 협회 주요활동



○ 암소감축 인센티브 관련 회의 (5.2)

- 농가 신청 후 조속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체계 개선 논의
- 도축후 보조금 지원으로 변경 추진

○ 2022년 제1차 축단협 대표자 회의 (5.4)

-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의 회장 연임 만장일치 추대
- 임기: 2023년 5월 (1년)



○ 한국농어민신문 '위기의 사료산업, 흔들리는 축산업' 긴급 간담회 패널 참석 (5.4)

- (협회 의견) 국제 곡물가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와 사료업계 지원 예산 추가경정예산 마련 필요
 - 1) 올 상반기 한우 두당 도매가격이 893만7000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사료비·조사료비가 모두 올라 생산비는 902만3000원까지 치솟아 오히려 8만6000원 손실이 발생
 - 2) 하반기엔 54만2000원까지 그 폭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
 - 3) 특히 손실 발생이 더 큰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파산 농가도 발생 우려
- (정부 의견) 생산자단체들과 전문가들이 말하는 (사료 가격 안정) 대책 등을 재정당국에 제안함. 정권 교체 시기라 대책 수립이 다소 지체됨. 정부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 또한, 비릿값 상승에 따른 경종농가와 함께 사료값 상승에 따른 축산업계 지원도 기재부를 설득 해가겠음. 예산 확보 타당성을 알리기 위해 생산자단체와 사료업계 등 축산업계도 함께 대응해 나가길 바람.

5.9 ○ 협회-한우자조금 월간회의

5.10 ○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

○ 한우마당 편집회의

○ 대동공업 업무협의

- 협회원 한정 농기계 구매 프로모션 추진 검토

○ 이마트24 한우도시락 출시 업무 협의

5.11 ○ 월간식당 인터뷰

- 6월호 「고품질 명품 한우」 바른 먹거리·착한 소비 <전국한우협회>

○ 축산경제신문 인터뷰

- 5월 16일자, 「“한우인들 결집 위기 극복”」



5.13 ○ 식물성 대체육 용어 표시 관련 간담회

- (협회의견)

- 1) 고기, 육 등의 표현을 비롯하여 대체라는 표현은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용 및 표기 제한 요구
- 2) 식물성 단백질 제품의 육류 대체 불가의 학술적 연구 결과(듀크대학교) 제시 및 식품영양표시 강화 요구
- 3) 제품 표면 상단에 육류/고기 미포함 문구 삽입 제도화 요구

- (식약처 의견)

- 1) 식물성 단백질 가공업계에서 육/고기 등의 표기 불가에 대한 불만이나 의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 중
- 2) 축산학회를 통해 용어 정의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연구가 진행 중, 올해 말 경 결과 도출 예정
- 3) 고기/육 등의 표기 제한과 제품 표면 상단에 육류/고기 미포함 문구 삽입 제도화에 대한 검토 수렴

- 5.18 ○ **국회 방문 및 사료구매자금 추가증액 요청**
 - 이종배 예산경산특별위원장, 김선교 의원, 이철규 의원, 고민정 의원, 어기구 의원, 정희용 의원, 최형두 의원, 정태호 의원, 류성걸 의원, 정운천 의원, 신정훈 의원, 이원택 의원, 홍문표 의원 등
- **홈페이지 개선 업무협의**
- **한우 쿠팡라이브 방송 출연**
 - 가정의달 청계천 대면 행사 안내
- 5.19 ○ **가정의달 한우할인행사 기념식**
 - 주제: 가정의달 '감사한우'
 - 기간: 5.19(목) ~ 5.21(토)
 - 장소: 서울 중구 청계광장
- 5.20 ○ **축산관측 2022년 6월호 중앙자문회의**
축산자조금 사업 승인 업무협의 (농식품부)



- 5.24 ○ **제 25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여농가 총회**
 - 주요내용
 1) 종합품질가점제 도입 논의(근내지방도 최고점 도체의 차별화된 육질 평가 기준 신설 * 미세마블링, 육색,광택, 조직감 등)
 2) 한우개량명인 인증서 수여 논의(서승민, 전남영암)
- 5.26 ○ **2022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협회 MOU 체결**
 -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협조 및 충북도청과의 협력관계 강화
- **한육우 수급조절협의회 소위원회**
 - 미경산우 및 경산우 수급조절 지속 추진 방안 논의
 -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내용 및 마릿수 설정 등 사업 보완 협의





5.30 ○ 한우자조금 제2차 관리위원회

- 한우자조금 사업 추진실적, 예산안 보고 및 의결
- (김삼주 회장 인사말 통해 협회 구심 당부)

* CPTPP 관련 설명

- 1) 농업 및 한우산업 피해 설명
- 2) 저지 활동 집회 성과 (신청저지, 정부와 피해 보전 대책 논의 선행 등)

* 사료가격 폭등 관련 정부 및 국회 협조 정책활동 설명

- 1) 사료구매자금 1조5천억 지원 및 금리 1% 인하
- 2) 당초 2.4%인상(안) 상정중, 축산농가 어려움으로 무이자 주장
- 3) 결론적으로 1% 인하 결정

* 소값안정을 위한 합심 당부

- 1) 협회의 정책활동은 전체 한우농가의 권익과 직결됨
- 2) 한우협회가 한우자조금을 출범시킨 이유를 상기하고,
- 3) 정책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들의 성원 당부
- 4)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은 함께 가야하는 공동운명체임을 강조

○ 조사료 수급상황 대책 회의

○ 5월 가정의 달 행사

지역	제주	울산	부산경남	전북	서귀포
기간	4.29~5.1	5.3~5.4	5.4~5.8	5.6~5.8	5.6~5.8

원숭이두창


‘원숭이두창’은 Monkeypox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천연두’와 유사하나 전염성과 중증도는 낮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감염자 대부분은 자연 회복되며, 치명률은 3~6% 안팎이다. 치사율은 변종에 따라 3~6%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며 야생동물 고기를 다루거나, 야생동물의해 상처를 입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체와 접촉하거나, 감염자에게 옴는 등의 방식으로 감염된다. 항바이러스 제제가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사이버 렉카

교통사고 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도착하는 렉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이슈가 생길 때마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재빨리 짜깁기 글이나 영상 등을 만들어 짜깁기한 영상 등을 만들어 인터넷 뉴스,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려 조회수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 기성 언론이 보도한 기사와 사진, 동영상을 편집한 화면에 자신의 목소리만을 덧씌운 영상을 올린다거나 보도의 경우는 속보를 내보낸 언론의 기사를 편집해 내보내는 행태를 보인다. 또한 콘텐츠 제작자의 근거 없는 생각 등이 더해지면서 루머를 양산되면서 여론이나 정보를 왜곡하는 등 저질 콘텐츠 가짜 뉴스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전국한우협회 대한한우사료

- 한우 사료 품질과 가격의 표준점 제시
- 농가 주도 생산·원가공개·매달 가격 연동 시행



대한한우 사료의 원료구성

옥수수, 루핀후레이크, 대두박, 옥배아박, 채종박, 아자박, 팜박, 소맥피, 단백피, 비타민+미네랄혼합제, 황토, 미생물제, 당밀향+감미제, 번식개선펙제

대한한우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

비육 구분	어린송아지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비고
급여사료명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생후 월령	2~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출하월령 28개월 이상				
체중 (kg)	150	200	220	240	260	290	320	350	380	420	450	480	510	540	570	600	630	650	670	690	710	730	750	출하체중 750kg 이상				
일당증체량(kg)	0.8	0.8 - 1.0										1.0 - 1.2								0.6 - 0.8								0.84 kg
조사료 건초 배짚	2.0	자 유 채 식										2.0	2.0	1.0														
										1.0	1.0	1.0	2.0	2.0	1.5	1.5	1.5	1.0	1.0	1.0	1.0	1.0	1.0					
배합사료 급여량		3.0	3.5	4.0	4.5	5.0	5.5	6.0	7.0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5	9.0	9.0	8.5	8.0					

대한한우 번식우 사양 프로그램

사 육 구 분				번식우육성(반추위, 소화기관 완성기)							임신우												포유우	
월 령 (개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경산우								포유중	
체 중 (kg)				130 ~150	150 ~170	170 ~190	190 ~210	210 ~230	230 ~250	250 ~265	270 ~285	290 ~305	310 ~325	330 ~345	350 ~365	370 ~385	390 ~405	410 ~425	430 ~445	450 ~465	470 ~485	490 ~505		
일당증체량 (kg)				0.6 ~ 0.8							0.4 ~ 0.6												0.6	
구 분				번식용 중송아지							임신우												임신우	
1일사료 급여량 (kg)	섭취 량	배합 조사료		2 ~ 3 kg							3 ~ 4 kg												4 kg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 10%정도 증가시켜 줄 것 임신 7개월부터 10% 증가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증감 요인																						



대한한우
어린송아지사료
25kg

대한한우 어린송아지

적용범위 생후2개월~6개월

- 미아리산과 탄닌 함유에 의한 고창증과 설사 예방
- 천연물질에 의한 항병력 강화
- 반추미생물과 효모제 강화
- 식이섬유와 비타민/미네랄 강화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
- 대용유함유에 의한 빠른 입몰이기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에너지	20.0	2.5	20.0	
조화분	칼슘	인	TDN	
	10.0	0.9	1.5	70.0



고품질
대한한우
25kg

대한한우 번식우

적용범위 5개월~임신우

- 발정과 수태율 최적화를 위한 충분한 영양소 공급
- 번식전용 비타민/미네랄 설계
- 황토급여에 의한 미네랄 보충
-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번식우	14.0	2.0	15.0	
조화분	칼슘	인	TDN	
	15.0	0.8	1.2	68.0



고품질
대한한우
25kg

대한한우 육성기

적용범위 생후7개월~14개월

-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골격과 내장의 발달을 촉진
- 적정에너지 공급
- 섬유소 공급에 의한 반추위와 소화기관 안정화
- 높은 수준의 비타민과 균형 있는 미네랄 공급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육성기	15.0	2.5	20.0	
조화분	칼슘	인	TDN	
	15.0	0.7	1.2	70.0



고품질
대한한우
25kg

대한한우 비육전기

적용범위 생후15개월~22개월

- 반추위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 최대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 향상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 비육효과를 최대로 발현시키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필요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비육전기	13.0	2.5	20.0	
조화분	칼슘	인	TDN	
	15.0	0.7	1.2	73.0



고품질
대한한우
25kg

대한한우 비육후기

적용범위 생후23개월~28개월

- 근육내 지방 발달 극대화 육질 향상
- 단백질과 에너지의 균형 있는 배합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 고급육 효과를 최대 발현시키기 위하여 TDN을 높여 줌
-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을 향상
- 과비방지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비육후기	12.0	2.5	20.0	
조화분	칼슘	인	TDN	
	15.0	0.7	1.2	75.0


사료가격 투명화 / 합리적 가격 / 생산비 절감

고품질 한우사료 ‘대한한우’


한우 생산비 중 농가소득을 좌우하는 사료비 비중이 50%이상!

사료가격 결정의 주체는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 매월 1일 환율 및 유가(곡물가) 변동 등에 따라 기준가격 변동



22년 6월 협회전용 사료 ‘대한한우’ 가격 안내



공장출고가 기준(운송비 등 추가비용 반영안된 가격임)



어린송아지
14,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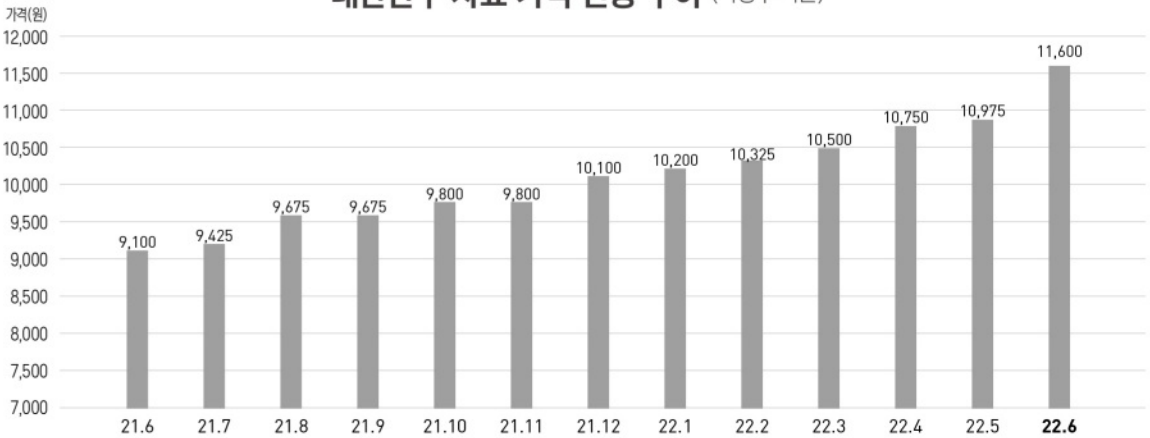
번식우
11,250

육성
11,600

비육전기
11,600

비육후기
11,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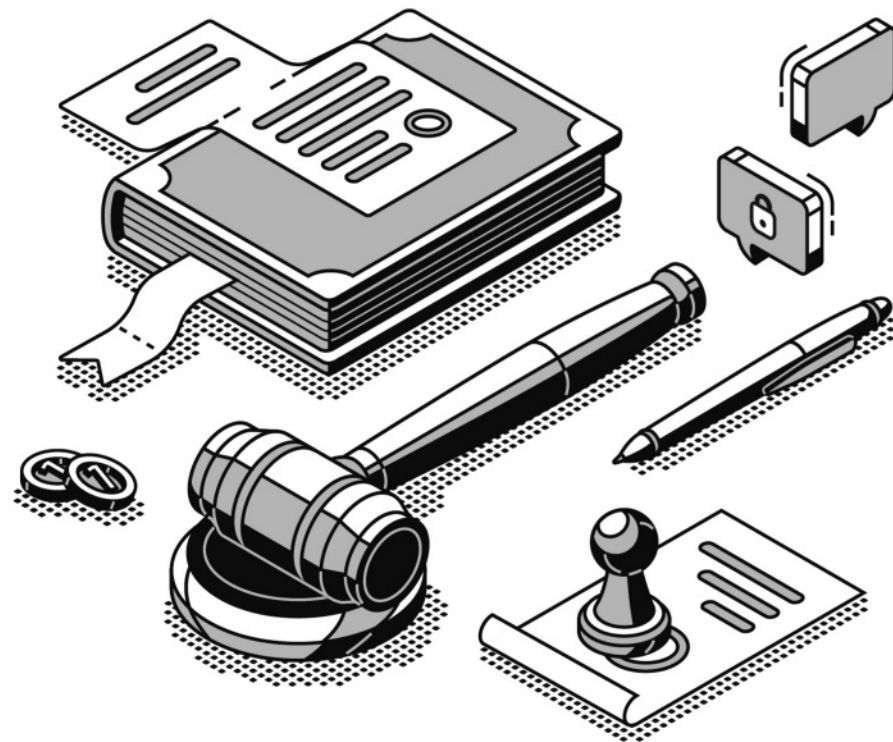
대한한우 사료 가격 변동 추이 (육성우 기준)



협회전용사료 문의 ☎ 02-525-1053 (내선 208)

국회 추경안 통과로 특별사료구매자금 등 금리 1% 확정

국회 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 성과...정책자금 금리 인하



지난 5월 30일 2022년 제2회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함에 따라 최근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의 금리가 1%로 확정됐다.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의 금리도 1.8%에서 1%로 경감됐다. 당초 요구했던 무이자도 달성하지 못했지만, 축산농가의 사료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국회, 정부와 사료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국한우협회 사료가격 안정대책 요구(안)

<국회의원실 방문 설명자료 요약본>

요구1 축산 생산비의 40~60%를 차지하는 사료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 원료가격 인상분에 대한 추경 지원. 지난해 요소수 사태로 인해 올해 무기질비료의 경우 가격 인상분의 80%를 추경을 통해 정부(10%)·지자체(10%)·농협(60%)에서 지원하고 있음.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산농가도 추경반영을 통한 추가 지원 건의

요구2 앞으로도 상승세가 우려되는 사료가격에 대해 농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이자지원 필요

1. 사료업계 현황

■ (사료가격 현황) 사료가격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2년 7월 기준으로 '18년 1월 대비 204원/kg(45%) 상승예상

• 사료가격(평균단가) 추이

(단위 : 원/kg)

구 분	'18.1월	'19년	'20년	'21년	'22.3	'22.7월
배합사료	453	472	480	523	585	657
'18년 대비	-	19↑	27↑	70↑	132↑	204↑

* 전 축종 평균 / '22년 하반기 72원/kg 인상 가정 (하반기 수입원료가격 상승분 반영)

• 최근 가격조정 현황

(단위 : 원/kg)

구 분	'21.2~3월	'21.7~8월	'21.12월	'22.3월	'22.7월예상
인상 단가	42~48.5	대 가 축 : 41~43 중소가축 : 57~63	43 52	42 55	72~100

■ (조사료가격 현황) 수입조사료가격은 '22년 3월 기준으로 '19년6월 대비 178원/kg(61%) 상승

(단위 : 원/kg)

구 분	'19년6월	'20년6월	'21년 9	'22.3월	'22.하반기
수입 조사료	288	328	355	466	510

* 한우 수입조사료 애뉴얼 농가 공급단가 기준

■ (축산농가) 축산물가격 하락 및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 부담 가중

• 한우 도매가격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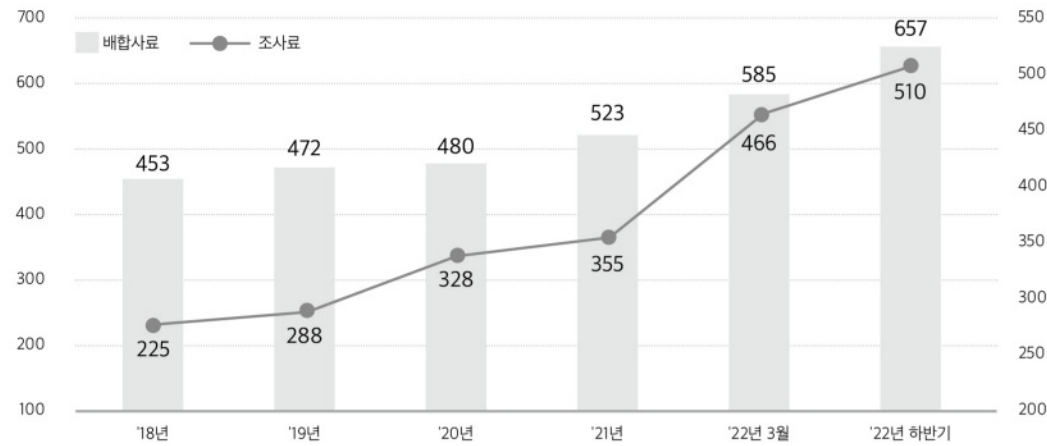
도매가격 전망

*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KREI('22.3월)

구 분	'21년 평균	'22.3월	'22년 하반기
한우 도매가격(원/kg)	21,001	19,572	18,000

사육 마릿수 및 도축 마릿수 전망

구 분	'21년(A)	'22년(B)	증감(B-A)
사육 마릿수(천두)	3,385	3,555	170↑(5%↑)
도축 마릿수(천두)	794	854	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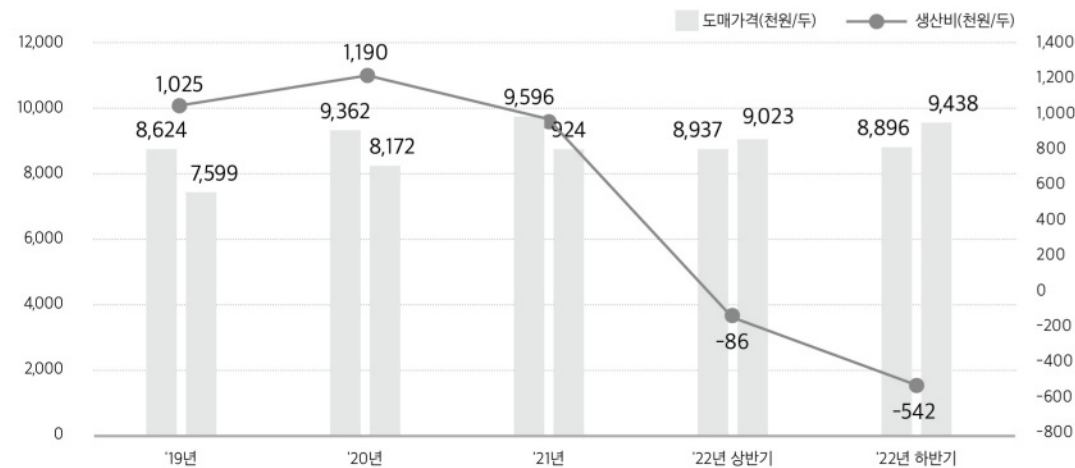


• 한우 비육우 마리당 농가소득 추정

(단위: 천원/두)

구 분	'20년	'21년 (추정)	'22.상반기 (추정)	'22.하반기 (추정)
생 산 비	8,172	8,672	9,023	9,438
증 감				
사 료 비	-	457↑	231↑	394↑
조사료비	-	43↑	120↑	21↑
농가소득	1,190	924	△86	△542

※ 중소농가일수록 22년부터 점차 소를 출하 할수록 손실이 발생



2. 사료가격 안정대책(안) : 정부 건의사항

단기대책

■ (사료원료가격 인상분 지원) 하반기 수입원료 가격 인상분 지원

- 2분기 이후 구매분에 대하여 인상액 보전(HS코드 기준/10개 품목)

구 분	1분기(p)	2~4분기(p)	증 감	보전효과
수입량(톤)	3,670,235	12,013,797	58.6\$/톤 (71.6원/kg)	8,598억원 (추정)
단가(\$/톤)	335.7	394.3		

* 옥수수, 소맥, 대맥, 대두박, 팜박, 아자박, 채종박, 카사바, 소맥피, 단백피

■ (조세감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구 분	현 행	변경(안)			
		1안	2안	3안	4안
공 제 율	2/102	3/103	4/104	5/105	6/106
공제한도	40%	50%	50%	50%	50%
공제액(추정)	864억원	1,283억원	1,695억원	2,098억원	2,494억원
절감효과(추정)	-	419억원	831억원	1,234억원	1,630억원
단위당	-	2.0원/kg	3.9원/kg	5.9원/kg	7.8원/kg

* 공제율 → 부가세법 개정 / 공제한도 → 시행령 개정

- 일몰제 기한('23년말) 연장 또는 일몰제 폐지
- '23년말까지 과세표준의 40%로 공제한도 상향(당초 : 30%)

■ (사료가격 안정자금 투입)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

- 사료원료구매자금 : 647억원(2.3%) → 1조원(무이자)
- 보전효과(사료업체) : 230억원(추정)
- 농가 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 3,500억원(1.8%) → 1조 5천억원(무이자)
- 보전효과(농가) : 270억원(추정)

■ (기타사항) 전기료 및 도시가스 요금 추가인상 유보

- * 전기료 : '21.1월) 109.5원/kwh → '22.4월) 116.4 (6.9↑) → 10월) 121.3 (4.9↑)
(산업용전력 여름철 중간부하 전력량요금 기준 / 4월 기후환경요금 인상 2원 포함)
- * 도시가스 : '21.1월) 12.8원/MJ → '22.1월) 23.92 (11.12↑) → 5,7,10월 추가인상 예정



중장기대책

■ (조사료 수급 안정화) 사료용 벼 재배, 국내 조사료 재배지 확대

- 일반용 쌀 생산량 중 여유분 축소 → 사료용 벼 재배

일반용 쌀		사료용 벼 재배 시	옥수수 대체가능물량
생산량('21)	여유분('21)		
388만톤	27만톤 → 81만톤(추정) (54,000ha)	81만톤(추정) (54,000ha)	71만톤(추정)

* 생산가능물량 : (일반용) 5톤/ha, (사료용) 15톤/ha

* 사료용 쌀의 사료가치는 옥수수와 비교 시 88% 수준

- 벼짚환원사업 대폭 축소 → 벼짚 생산기반 확대

벼짚환원사업 총 면적	벼짚환원사업 대체시 생산량(추정)		비 고
		생산수량	
28,513ha	270,873톤 (9.5톤/ha)	1,140롤 (25롤/ha)	

* 비육우 벼짚 소요량 1.4톤/년 → 1년간 비육우 193천두 물량 해당

- 정부비축미를 사료용으로 공급 → 옥수수 대체원료로 사용

구 분	'17년산	'18년산	'19년산	'20년산	'21년산	합 계
비축미 재고(천톤)	5	16	43	25	335	424

- 국내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하천부지 야초수거사업 확대(경관식품)
- 혼합조사료 취급확대(일시), 사일리지 제조비용(생산+유통비) 지원확대

■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사료가격 상승 시 보전금 지원

- 국내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논의('11~'12) →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유선호 의원 사료관리법 개정안에 기금 설치 발의('11.7)
 - 유우근 의원, 홍문표 의원 등 기금 관련 법률안 발의('12.7~8)

* 분담비율 : 정부 40~60%, 생산자 30%, 농가 10~30%

< 참고자료 - 일본 사료가격안정기금('75년 2월 기구 설립) >

- 통상보전기금(민간) : 직전 1년 평균가격 이상으로 사료가격 상승 시 보전금 교부
- 이상보전기금(국가+민간) : 직전 1년 평균가격 대비 115% 이상 원료가격 상승 시 지원

* 분담비율 : (통상보전) 농가 1/3, 생산자 2/3 (이상보전) 정부, 생산자 각 50%

참고 1

국제 곡물가격, 해상운임 및 환율 동향

■ 국제곡물가(수입원료)

- 수입옥수수의 경우, '19년 대비 200\$/톤(100%) 상승
- '22년 초 국제곡물가격은 남미 재배지의 고온 건조한 날씨(라니냐)가 지속되며 옥수수 및 대두의 생산량 감소 등 공급부족 우려로 '21년에 이어 강세가 지속, '22년 2월 전 세계 소맥 1위 수출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수출 4위) 침공 발생으로 가격 급등

(도착도, 단위 : \$/톤)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상반기	하반기	평균	1분기	2분기	평균 ('19대비)	3분기 ('19대비)
옥수수	200	200	248	310	281	321	381	351(76%↑)	400(100%↑)
소 맥	238	231	266	298	289	344	332	337(42%↑)	380(60%↑)
대두박	378	358	458	484	471	474	539	522(38%↑)	620(64%↑)

■ 국제유가 및 해상운임

- 러시아(3위 산유국) 에너지 제재 우려 및 유가 급등에 해상운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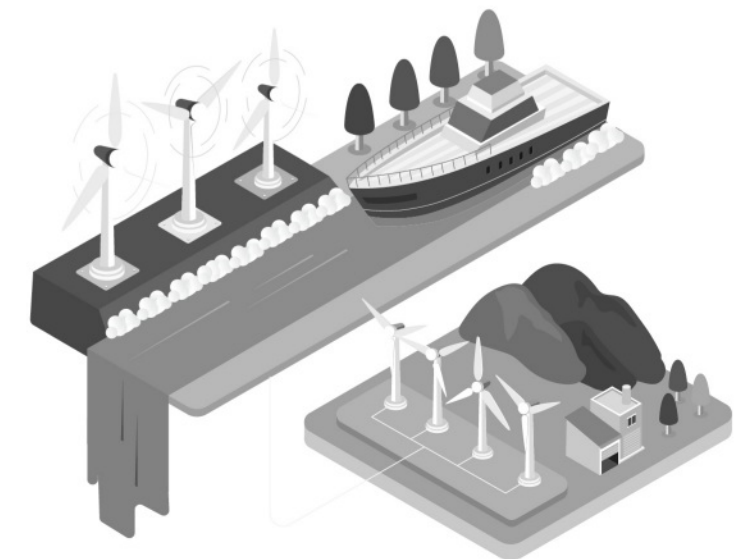
(단위 : \$/배럴, \$/톤)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상반기	하반기	평균	1분기	2분기	평균 (전년평균대비)	4월 (전년평균대비)
국제유가	57	40	62	74	68	95	99	99(45.8%)	99(45.8%)
해상운임	20	20	35	41	37	42	55	48(29.7%)	55(48.6%)

* 기준 : (국제유가) WTI, (해상운임) US PNW-Korea

■ 원/달러 환율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달러화 강세로 1,200원 위로 급상승
 - '21년말) 1,189 → '22.1월) 1,206 → 2월) 1,202 → 3월) 1,211



참고 2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지원사례

- 일본 사료가격안정기금('68, '74)
 - ('68) 민간 주도의 통상보전기금 설치 : 농민 1/3, 사료업체 2/3
 - ('74) 정부 주도의 이상보전기금 설치 : 정부 1/2, 사료업체 1/2
- 국내 사료가격안정기금('75~'84)
 - 지원배경 : 대홍작에 의한 곡물파동('72), 5차례 사료가격 인상('73~'75)
 - 사료가격 안정효과는 미미한 반면, 거출부담금 과다 등 부작용이 많아 제도 폐지
- 국내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논의('11~'12)
 - ('11.7) 유선호 의원 사료관리법 개정안에 기금 설치 발의
 - *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12.7~8) 우유근 의원, 홍문표 의원 등 기금 관련 법률안 발의
 - *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 이차보전 지원('14.01~'17.03)
 - 지원배경 : 축산물 가격하락 및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가중
 - 지원주체 : 정부(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농협(이자보전)
 - 지원금액 : '08~'09) 2조 672억원, '13~'14) 1조 5천억원
 - 이차보전(농협) : '14) 133억원, '15) 90, '16~'17) 27
 - * 농협 1%, 농가 1.5%, 농림부 잔여이율 부담
- 프랑스 사료값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22.03)
 - 지원배경 : 러-우 사태로 인한 사료용 곡물가격 폭등
 - 지원주체 및 지원금액 : 프랑스 정부 / 4억 유로(약 5,300억원)
- 무기질비료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22.03)
 - 지원배경 : 비료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
 - 지원내용 : 가격 상승분의 80%를 농협이 우선 차감하여 판매
 - 지원금액(추정) : 총 4,502억원 (중앙회·경제지주 563억원)
 - * 분담주체 : 정부 50%, 중앙회·경제지주 10%, 지역농협 10%, 생산업체 10%
- 정부 미국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지원
 - 지원배경 : 수확기 농가 벼 판로 확보 및 산지 쌀 유통기능 활성화
 - 지원금액 : 정부 1조 3천억원, 농협 1조 2,308억원 / 금리 0~2%

참고 3 비육우 생산비 관련 참고자료

■ 비육우 규모별 생산비

- '21년 평균 경영비 및 생산비는 8,747천원, 9,922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0%, 6.6% 증가

* 평균 경영비(천원/마리) : ('16년) 6,460 → ('20년) 8,172 → ('21년) 8,747

* 평균 생산비(천원/마리) : ('16년) 7,430 → ('20년) 9,309 → ('21년) 9,922

* 평균 소득(천원/마리) : ('16년) 1,962 → ('20년) 1,190 → ('21년) 1,295

(단위 : 천원/마리,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p)
20두 미만	경영비	6,662	6,879	7,441	7,754	8,296	8,899
	생산비	8,676	9,222	9,750	10,124	10,696	11,379
	소득	1,376	805	712	784	713	755
20~49	경영비	6,281	6,774	7,290	7,532	8,273	8,521
	생산비	7,609	8,171	8,895	9,120	9,956	10,192
	소득	2,120	991	927	1,065	984	1,039
50~99	경영비	6,453	6,721	7,282	7,678	8,242	8,808
	생산비	7,274	7,555	8,335	8,690	9,317	9,864
	소득	2,103	1,094	1,065	876	1,150	1,245
100두 이상	경영비	6,483	6,338	7,101	7,494	8,047	8,808
	생산비	7,020	6,857	7,661	8,015	8,608	9,400
	소득	2,002	1,468	1,319	1,166	1,457	1,610
평균	경영비	6,460 (14,796)	6,601 (15,043)	7,229 (16,293)	7,578 (16,999)	8,172 (18,282)	8,747 (19,266)
	생산비	7,430 (17,018)	7,645 (17,423)	8,372 (18,869)	8,682 (19,475)	9,309 (20,826)	9,922 (21,854)
	소득	1,962	1,176	1,083	1,025	1,190	1,295

주1) : 2021년 한우 비육우 생산비에 물가상승률 3.7% 및 농협사료 인상분(83원/kg)을 적용하여 산출함

주2) : ()는 경영비 및 생산비 수준을 도매가격으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 통계청

참고 4 사료용 쌀 관련 정책 건의사항

1. 사료용 쌀 적극 활용 건의

- ① 논벼 면적을 사료용 벼 재배로 전환
- ② 정부비축미를 사료용으로 공급

2. 사료용 쌀의 사료가치

■ 사료용 쌀의 사료가치는 옥수수와의 비교 시 85~88% 수준

- 옥수수 대비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단백질과 지방은 부족하나 사료이용성은 돼지, 닭의 경우 옥수수보다 우수
- 제조단계에서 부족한 영양분 첨가 시 일반 배합사료 수준의 사료적 가치

< 옥수수와 현미 영양소 비교 >

(단위 : %)

사료명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수분
옥수수(A)	8.98	2.94	2.12	2.91	14.67
현 미(B)	7.47	2.21	1.50	1.20	14.98
지수(B/A,%)	83.18	75.17	70.75	41.23	102.11

※ 옥수수 : 사료자원 핸드북(한인규), 쌀(현미) : 사료협회 기술연구소 분석

< 축종별 사료 이용성 비교(건물기준) >

구 분	한우(500kg)			돼지(85kg)			닭(9주령)
	DCP (%)	TDN (%)	DE (Mcal/kg)	DCP (%)	TDN (%)	DE (Mcal/kg)	ME (Mcal/kg)
현미(A)	6.53	91.9	3.97	7.03	97.8	4.26	4.12
옥수수(B)	6.94	92.3	4.07	7.92	93.2	4.00	3.56
지수(A)/(B)	94	99	98	89	105	107	116

※ DCP(가소화 조단백질), TDN(가소화 영양소총량), DE(가소화 에너지), ME(대사 에너지)

■ 양질의 사료용 쌀은 조사료(벼짚) 보다 영양학적 가치 높음

- 사료용 쌀 TDN은 73%, 조사료(벼짚) TDN은 44%
- TDN 가치 비교 : 사료용 쌀 1kg = 일반적 조사료 1.6kg

< 사료용 쌀과 조사료 비교 >

구 분	판매단가	TDN	조단백질	조회분	조섬유	조지방
사료용 쌀	250원/kg	72.95	8.7	6.41	7.2	2.58
조사료(벼짚)	160원/kg	43.66	5.07	16.73	32.04	1.99
조사료(알팔파)	560원/kg	62.52	17.73	9.54	25.94	3.26
조사료(티머시)	545원/kg	70.57	15.31	5.17	32.89	5.83
조사료(라이그라스)	350원/kg	67.73	25.83	8.16	39.30	2.86

※ 자료 : 한국표준 사료 성분표(농사로), 한국작물학회지



3. 사료용 쌀 공급확대를 위한 과제

■ 사료용 쌀 공급가격의 인하

- 현재의 배합사료 주원료는 수입산 옥수수, 밀 등
- 수입산 옥수수를 사료용 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료용 쌀 가격이 수입산 옥수수 가격 이하로 공급 필요

■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마련

- 현재의 사료공장은 배합설계나 시설면 등의 제약으로 단기에 사료용 쌀 처리 어려움

■ 사료용 쌀의 집하·유통·보관시설 확보

- ※ 특히 사료용 쌀은 주식용 쌀과 같이 일시에 수확되고 연중 이용됨
- 수확 조제한 사료용 쌀의 생산지역에서 1차 보관
- 사료공장에서 배합사료 원료로서의 2차 보관

■ 사료용 쌀에 대한 정부정책 지원

- 논벼 면적에 사료용 쌀을 대체할 수 있는 인센티브, 보조금 유인책 필요

■ 사료용 쌀에 대한 소비자 이해증진

- 사료용 쌀을 급여한 가축의 고기, 계란, 가공품의 맛, 색깔 변화에 따른 소비자 이해 필요
- 다양한 생산자단체, 소비자와 함께 사료용 쌀의 생산가격, 장기적인 전망, 농업상의 의미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
- 주요 선진국처럼 주식용과 사료용으로 구분하여 쌀 과잉을 방지하고, 자급률의 향상과 논 농업의 활성화 도모 필요

4. (일본) 사료용 쌀 참고 자료

- (배경) 사료용 쌀 사용 확대를 통한 쌀 과잉문제 해결 목표
 - 주식용 쌀의 소비량 감소로 만성적인 공급과잉 문제 발생
 - 국민 1인당 소비량(백미) : 1962년) 118kg → 2018년) 53kg (한국 '21 57kg)
 - 총 소비량(현미) : 1963년) 1,341만톤 → 2018년) 845만톤
 - * 쌀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만 6천ha씩 쌀 재배면적 감소필요
- (정책) 논 활용 직접지불 교부금 시행
 - (목표) 주식용 쌀의 과잉 공급 해소 및 사료 자급률 제고
 - 2025년까지 사료용 쌀 110만 톤, 쌀가루용 쌀 10만 톤 생산, 사료 자급률 40%로 향상
 - 사료용 쌀의 생산비용을 2025년까지 약 5% 감소
 - (예산) 2020년 예산액은 3,050억 엔 (농림수산 2조 3,109억 엔의 약 13.2%)
 - (지원내용) 전략 작물 조성, 산지 교부금, 논 농업 고수익화 추진 조성 등
 - ① 전략 작물 조성 : 전략 작물 조성은 논에 주식용 쌀 대신 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 보리, 콩,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장려하는 사업

< 전략 작물 조성을 위한 교부금 지급 단위 >

대상 작물	교부 단위
보리, 대두, 사료작물(사료용 옥수수 포함)	3.5만엔/10a (340만원/ha)
WCS용 벼(총체벼)	8.0만엔/10a (778만원/ha)
가공용 쌀	2.0만엔/10a (195만원/ha)
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	수량에 따라 5.5만~10.5만엔/10a

※ 자료 : 農林水産省,「令和2年度農林水産予算概算決定の概要」

※ 참고 : 1ha = 100a = 3,025평

- 산지교부금에 더하여 지역농업재생협의회별로 주식용 쌀에서 다른 품목으로 전환한 면적이 전 연도에 비해 확대했을 때 아래와 같이 지급

< 주식용 쌀의 대체 품목 확대에 따른 가산형 직불 수준 >

프로그램명	지급 조건	교부 단위
전환 작물 확대 (가산)	지역농업재생협의회별로 주식용 쌀이 감소하고 전환 작물의 면적이 전년보다 확대	1.5만엔/10a (146만원/ha)
고수익 작물 등 확대 (가산)	지역농업재생협의회별로 주식용 쌀이 감소하고 고수익 작물 등(원예작물, 신시장 개척용 쌀, 가공용 쌀, 사료용 옥수수 등)의 면적이 전년보다 확대	3.0만엔/10a (292만원/ha)

※ 자료 : 農林水産省의「令和2年度農林水産予算概算決定の概要」를 바탕으로 정리

- ② 산지교부금 : 지역 단위 계획 ‘논 full 활용 비전’에 근거하여 이모작이나 경축연계 등을 지원

< 2020년 기준 산지 교부금 수준>

활동 내용	교부 단위
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의 3년 이상 계약	1.2만엔/10a (117만원/ha)
메밀, 유채 재배 (기간작에 한함)	2.0만엔/10a (195만원/ha)
신시장 개척용 쌀 재배 (기간작에 한함)	2.0만엔/10a (195만원/ha)

※ 자료: 農林水産省,「令和2年度農林水産予算概算決定の概要」

- ③ 논 농업 고수익화 추진 조성 : 논에서 쌀 대신 고수익 작물로의 전환을 위해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업하여 ‘논 농업 고수익화 추진 계획’에 제시된 산지에 대해 다음의 활동을 지원

< 논 농업 고수익화 교부금 수준>

지원 명칭	활용 내용	교부 단위
고수익 작물 정착 촉진	고수익 작물을 새로 도입한 면적에 따라 지원	2.0만엔/10a<5년간> (195만원/ha)
고수익 작물 발화 지원	고수익 작물에 의한 논에서 밭으로의 전환 활동 지원	10.5만엔/10a (1,020만원/ha)
알곡용 옥수수 지원	알곡용 옥수수 재배 면적에 따라 지원	1.0만엔/10a (98만원/ha)

※ 자료 : 農林水産省,「令和2年度農林水産予算概算決定の概要」

[참고] 한국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18~’20)

- 추진기간 : ’18~’20 (3년)
- 품목별 지원단가(’20년 기준) : 평균 327만원/ha
-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	재배면적(ha)
2018	26,447
2019	28,610
2020	21,469
합계	76,526



남인식 작가의

소가사는세상



**탄소 중립을
유지하는 세계 최대
소 도축장이
건립된다**

연간 3200만두의 소를 도축하여 1200만톤의 소고기를 생산하는 미국에서 세계 최대인 1일 8천두의 소를 도축하며 메탄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탄소 중립을 유지하는 최초의 도축장이 건립된다고 발표되었다.

미국 사우스 다코다주에 건립되는 이 공장은 킹스베리(Kingsbury)라는 민간업체와 개발회사등이 참여하여 3년간에 걸쳐 110억달러(13조 6천억원)를 투자할 예정인데, 특히 도축 라인 중에 1개 라인은 지역에서 많이 사육되고 있는 아메리칸 들소 도축 시설로 계획되어 있다.

이번 투자를 주도하는 업체 대표는 6대에 걸쳐 목장을 운영하던 가족의 여성이다. 그녀는 목장주들이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 얼마나 수익을 내기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 건립되는 도축장은 최첨단 장비와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을 과감히 도입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종사자들에게는 최상의 근무환경과 도축되는 소들에게도 쾌적한 조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이 도축장 시설은 6개월간의 연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2023년 초에 착공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토 결과는 다른 대형 업체가 1일 6천두 도축장에서 고용하는 4천여 명 정도

의 근로자 수를 20%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내 발생하는 모든 메탄가스를 포집하여 재생 에너지로 활용하고, 모든 용수도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한편, 미국 내 육류공급은 미네소타에 본사를 두고 카길(Cargill), 아칸소주에 타이슨(Tyson Foods)사, 콜로라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육류업체 브라질 제이비에스(JBS), 캔자스주에

있는 브라질 엔비에프(National Beef Packing)사가 전체 시장의 85%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미 지역 아메리칸 들소 혈통에 일반 소 유전자가 혼입되어 있다



1800년대 전까지 북미 대륙 전역에 야생으로 7,500만두 정도 생존하였다가 무분별한 사냥과 외래 유입 질병 전파 등으로 수백 마리까지 줄어들었던 아메리칸 들소의 혈통에 일반 가축으로 기르던 소와의 교잡에서 생겨난 소량의 유전자가 남아있다고 미국 텍사스 에이 앤엠 대학(Texas A&M College) 연구진이 발표하였다.

이들 연구진은 과거 아메리칸 들소의 혈통 규명을 위해 20여 년 전부터 관련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해 왔다. 연구 초기에만 해도 일부 순수 혈통이 남아있던 것으로 나타난 들소에서 최근 발달한 유전자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1천 842종의 일반 가축용 소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유사 유전자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에서 나타난 이러한 일반 소 유전자 유입은 지난 1870년대 후반부터 아메리칸 들소를 보존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책이 시행되면서 야기됐다. 비정부 기관 사육 들소는 물론 민간이나 원주민 사육시설, 심지어는 들소를 야생으로 방목하는 미국 옐로스톤이나 캐나다 옐크 아일랜드 국립공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현재 미국 내 들소 사육은 지난 1905년에 설립된 미국 들소 협회(American Bison Society)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주 정부나 연방정부 사육 시설, 야생동물 보호소 등에서 방목 사육되고 있는 것 외에 민간 목장에서는 최고급 육류용으로 집단 사육하고 있다. 특히 민간 목장 중에는 미국 언론 재벌이 소유한 민간업체에서 몬태나주를 비롯한 여러 곳에 4만5천여 두를 소유하여 최대 민간 목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들소에 일반 소유전자 유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유사 품종 간 교잡은 다른 야생동물에서도 흔하다며, 코요테와 늑대, 북극곰과 회색곰, 살쾃이와 스라소니 등의 예가 있으며,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유전자 규명이 혈통을 보존하는 첫걸음이라 지속적인 연구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국립공원청에 따르면 현재 북미 지역에 아메리칸 들소 사육 두수는 43만 두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에는 국가 포유동물로 지정된 상징성이 있고, 이들 품종의 보존은 미국 사회 각계각층의 정신적인 자부심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반기 한우산업 전망



글. 지선우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겪은지 약 2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코로나는 사회·경제 전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한우산업은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평가받는다. 코로나 영향으로 외식과 학교 급식 감소로 소비가 부진하고 공급물량이 늘어 가격 하락을 예상하였으나, 집밥을 중심으로 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등의 영향으로 한우 가격은 역대 최대 호황을 누렸다. 전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국가 간 서로의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국민들 또한 해외여행을 극도로 자제하며 국내에 머물면서 한우 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린 한우산업도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전년에 비해 고전을 겪고 있는 듯하다.

역대 최대 사육 마릿수에 따른 도축 마릿수 증가로 한우고기 공급이 늘며 한우 가격은 하락하였고, 이상기후와 물류대란 등으로 지난해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사료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해 농가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여건 변화는 한우 산업에 상당한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고에서는 2022년 상반기 한우 산업의 수급 상황을 되돌아보고 하반기 한우 시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사육 동향

한우 사육 마릿수는 미국에서 BSE 발생, 구제역 등의 영향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2012년 293만 마리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도축 마릿수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였고, 이는 번식 의향 감소로 이어져 송아지 생산이 줄어 2015년 277만 마리까지 감소하였다. 이 시기를 저점으로 한우 사육 마릿수는 가격 강세에 힘입어 최근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3월 1일자 기준 통계청 한우 사육 마릿수는 334만 2천 마리로 잠정 발표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3%, 평년 대비 14.6%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가임암소 마릿수는 161만 1천 마리로 역대 최대 마릿수를 기록하였다. 2021년 송아지 산지가격이 한우고기 가격 상승과 함께 올라 농가의 번식 및 입식의향이 늘어 암소 도태를 지연시킨 영향으로 보여진다. 사육 농장수는 8만 9천 농장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농장당 사육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한 37.4마리였다. 한우 농가의 규모화·산업화 진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단위: 천 마리, 천 가구, 마리)

한우 사육 마릿수 및 사육 농장수 동향

구분	2022년 3월	2021년 3월	평년 3월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한우 사육 마릿수	3,342	3,204	2,916	4.3	14.6
1세 미만	967	971	875	-0.5	10.6
1~2세	961	912	831	5.4	15.7
2세 이상	1,413	1,320	1,210	7.1	16.7
가임암소	1,611	1,525	1,397	5.6	15.3
사육 농장수	89	89	91	0.3	-2.2
농장당 사육 마릿수	37.4	35.9	31.9	4.0	17.1

주 1) 사육 마릿수는 3월 1일 기준 자료임.

2) 평년은 2017~2021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3) 2022년 3월은 통계청「가축동향」에서 발표된 잠정치이며, 1세 미만 마릿수는 추후 통계청 확정치 발표 시 증가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2. 공급 동향

5월까지 출하된 한우 전체 등급판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른 도축 가능 마릿수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34만 마리였다. 이중 수소(거세우 포함) 마릿수는 18만 4천 마리로 전년 대비 7.2% 증가하였고, 암소는 15만 6천 마리로 전년보다 8.5% 증가하였다. 전체 등급판정 마릿수 중 40% 초반이었던 1분기까지의 암소 비중은 4월 들어 50%를 육박하였는데, 이는 사료가격 상승과 송아지 산지가격 하락 등으로 번식의향 감소하였고, 경산우 암소 감축 사업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진다.

2022년 4월까지 수입량은 15만 톤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였다. 호주산의 경우, 홍수 피해 등의 영향으로 수출 작업이 지연되어 전년 대비 4.5% 감소하였으나, 수입 비중이 큰 미국산이 전년보다 8.4% 증가한 8만 4천 톤이 수입되었다. 한편, 구이류 등이 주로 수입되는 냉장 수입량은 주요 수입국 물류 정상화 지연과 국내 수입단가 상승, 수입 소고기 수요 부진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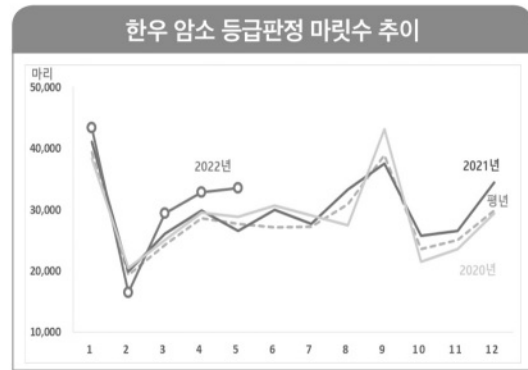
3. 가격 동향

2017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한우고기 도매가격이 꾸준히 우상향하며 비육 농가의 입식의향이 높아져 송아지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7개월령 송아지 평균가격은 수송아지의 경우 455만원으로 2020년보다 5.9% 상승하였으며, 암송아지 가격도 5.6% 오른 363만 원이었다. 한편 올해 4월 수송아지는 전년 동월 대비 12.3% 하락한 400만 원이었으며, 암송아지는 287만 원으로 전년보다 23.1% 하락해 수송아지보다 하락폭이 더욱 컸다. 큰 암소 가격(600kg)도 560만원으로 전년보다 11.4% 하락하였다. 수송아지 가격이 400만원대를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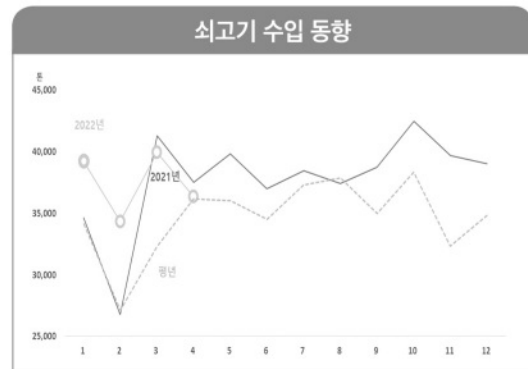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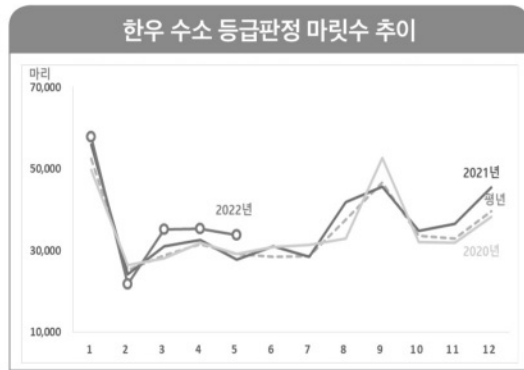
복했다는 것은 번식 농가 입장에서 고무적인 상황이었으나, 전반적인 산지가격 하락은 사료 가격 상승 및 한우고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번식 및 입식의향이 감소했다는 방증으로 보여진다.

2019년 12월 등급제 개편으로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은 현재까지 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가정내 소비 증가와 국민지원금을 이용한 한우고기 구매 증가로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한우고기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2만 1,169원으로 2020년보다 6.4% 상승하였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도축 마릿수가 증가에 따른 공급량 증가,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 감소 영향으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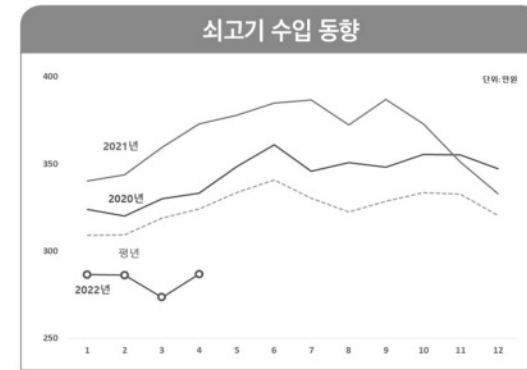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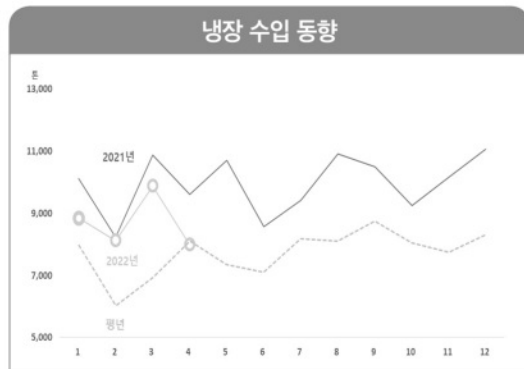
년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 5월까지 한우고기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1만 9,617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하락하였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2.3% 하락한 2만 4,147원으로 하락폭이 다른 등급에 비해 가장 작았으며, 1+등급은 2만 1,106원으로 5.7%, 1등급은 1만 8,859원으로 8.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육 출현율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가격 하락폭이 다른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거리두기 해제이후 가정내 소비는 감소하였지만, 고급육을 주로 소비하는 외식업체의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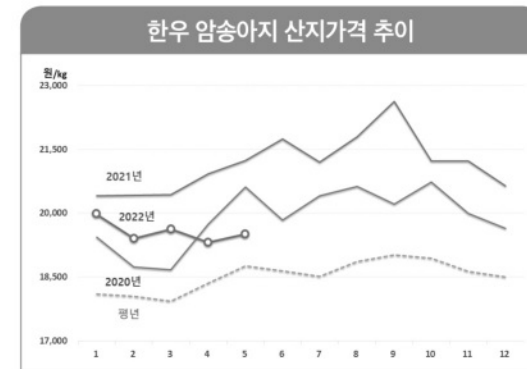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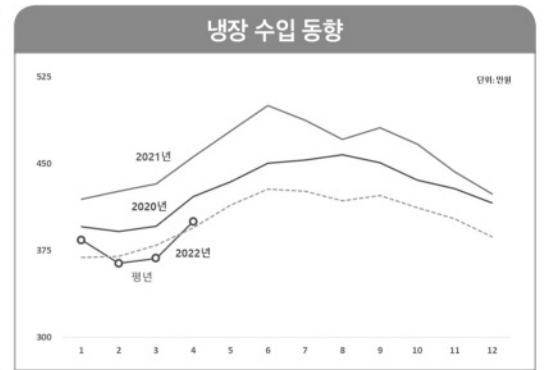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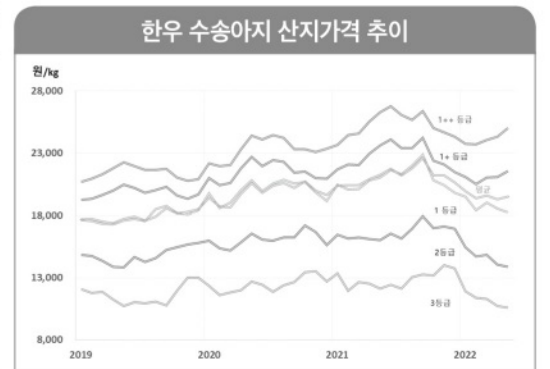
주: 2022년은 4월까지의 수입량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축산물 부위별 검사 실적」



주: 2022년은 4월까지의 수입량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축산물 부위별 검사 실적」



자료: 농협 축산정보센터



4. 하반기 전망

2022년 하반기에도 한우 사육 마릿수는 증가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사육 마릿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을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 출생 신고된 송아지 마릿수는 두 해 모두 100만 마리를 넘었으며, 2022년 송아지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2021년 정액 판매량도 2020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송아지 가격 강세로 암소 도태가 지연되어 가임암소 마릿수도 160만 마리 수준을 웃돌고 있어 향후 송아지 생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사육 마릿수 증가세는 2022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 월별 한우 송아지 출생신고 마릿수 >

단위: 천 마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22	64.5	80.6	133.5										278.6
2021	65.1	79.7	131.6	142.6	123.8	101.8	88.8	78.2	67.1	63.2	60.6	62.8	1,065.3
2020	59.0	76.6	123.6	138.2	123.6	100.0	83.0	75.5	62.1	61.1	55.5	58.1	1,016.2
평년	54.4	69.1	118.7	134.8	121.0	96.7	80.5	72.1	58.3	55.8	49.5	53.3	964.2

주 1) 「축산물이력제」에서 발표된 잠정치이며, 지연 신고 등에 따라 출생신고 마릿수는 증가할 수 있음.

2) 평년은 2017~202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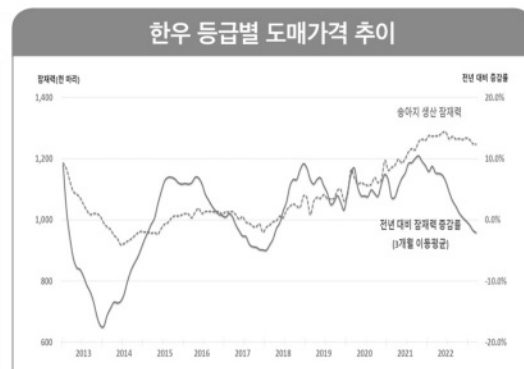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이력제

한편, 2022년 들어 한우 정액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5월까지 판매된 한우 정액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90만 스트로우었다. 송아지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이 번식의향을 낮춘 것으로 판단된다. 한우 정액 판매량 감소로 2023년 송아지 생산 잠재력 지수는 2022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송아지 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번식의향이 줄어 도축 마릿수 중 암소 비중이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은 향후 사육 마릿수 증가세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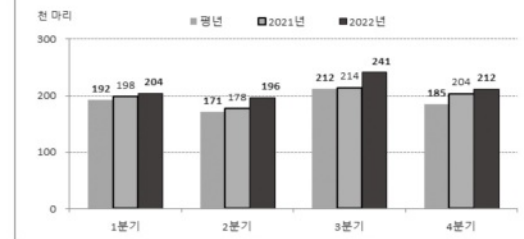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입식되어 누적된 한우 마릿수가 많고, 정액 판매량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지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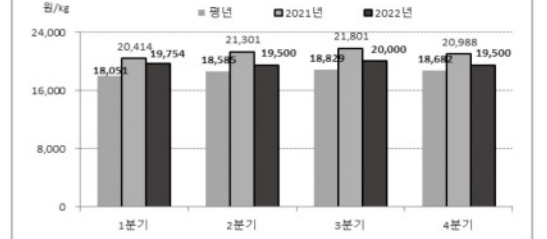


하반기 한우 도축 마릿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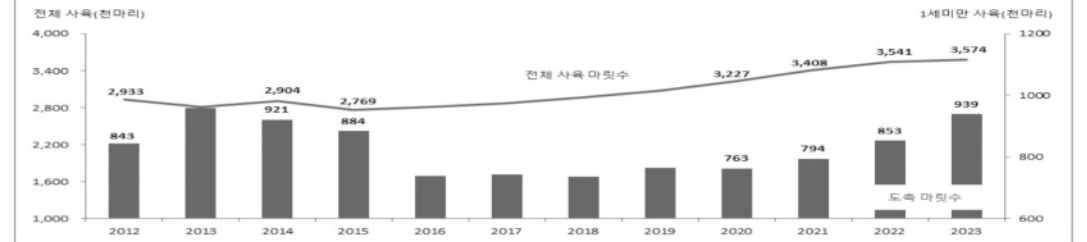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하반기 한우 도매가격 전망



한우 사육 및 도축 마릿수 전망



만 평년보다 약 10% 많은 수준으로 사육 마릿수는 2023년까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육 마릿수 증가는 출하 가능 마릿수가 늘어 도축 마릿수 또한 증가한다는 의미인데, 도축 마릿수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축산물 이력제 5월말 기준 29개월령이상 수소(거세우) 도축 가능 마릿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상황이며, 경산우 감축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암소 물량도 있어 하반기에는 현재까지 출하된 물량보다 더 많은 한우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우 가격은 공급과잉과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수요 감소로 현재와 같이 전년 대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수입 쇠고기의 가격 오름폭이 워낙 커 한우 소비의 이탈이 완화된 점, 해외여행 등 완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은 당분간 한우고기 수요를 유지할 수 있겠으나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환율 및 운임 상승 등은 사료가격 인상을 불가피하게 하고 이는 한우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농가의 수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영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한우산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창구를 통해 한우의 공급과잉 신호를 보내고,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와 내년 도축되는 마릿수가 과거 불황기만큼의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과거보다 규모화, 전업화, 과학화된 현재의 농가에서는 사전적 수급 조절 대응능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시장가격의 급등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농가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하반기 쇠고기 산업 전망



글. 한덕래 부장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20세기의 스페인 독감에 이어 약 100년 만에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질병이 발생하여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지 거의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팬데믹에 따른 섣달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등으로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었고, 각국에서는 경제위축을 막기 위하여 양적완화 및 제로금리 정책 등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전 세계는 지금 이에 따른 부작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물가가 상승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는 큰 변화를 나타냈고, 국내 쇠고기 산업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림 1> 한우 사육 및 도축 마릿수, 지육가격 추이



자료 : 통계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1. 한우 시장동향

한우농가의 사육의지 확대로 '22년 3월 사육 마릿수는 3,342천 마리(잠정치)로 전년 동기대비 4.3%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붉은 색의 사육 마릿수 추세선을 보더라도 우상향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사육 증가로 인해 출하도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22년 4월까지의 누계 도축 마릿수는 272.4천 마리

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2% 증가를 나타냈다. 지육가격은 '21년 9월에 평균 22,620원/kg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형성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 등의 외부활동 감소와 모임제한으로 가정소비가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외식시장은 국내산과 수입육이 시장을 나누어 점유하고 있지만, 가정소비는 우리 가족이 먹는 식품이다 보니 되도록 국내산을 구매하려는 소비의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한우시장은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지원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하지만 지육가격의 큰폭 상승에 따른 원료비용 급등, 인건비와 부자재비 등 각종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는 부분육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킬 수밖에 없었다. 또한 출하공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서민층의 주머니 사정 악화 및 서서히 늘어나는 외부활동 등이 가정소비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재난지원금 지원효과가 종료된 '21년 10월 중순 이후부터 안심, 등심, 채끝 등의 비싼 구이류 부위 판매가 위축되며 지육가격이 서서히 하락하여

'22년은 지육 평균가격이 19천원대에서 형성되는 등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한 평년 대비로는 아직 높은 가격 이기는 하지만, 사료비 급등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을 감안하면 점점 위험한 가격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는 지난 4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보복소비 및 가정의달 수요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회복되었으나, 어버이날 이후 수요가 급감하며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위가 적체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저등급이 심각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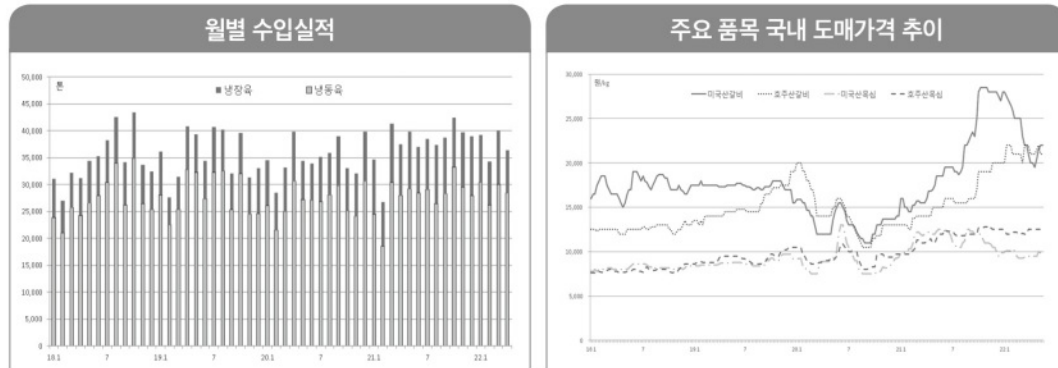
2. 수입육 시장동향

우리나라는 미국과 호주에서 쇠고기를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은 내수 수요가 높은 편이고 인력부족 등으로 생산이 아직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호주도 최근 홍수발생 및 인력문제 지속, 사육확대로 인한 암소도축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여기에 더해 추가로 두 국가 모두 생산비 상승 및 운송지연 등의 물류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오퍼가격이 계속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매유통가격도 동반상승하였는데, 이는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그림 2>의 수입산 쇠고기 주요 품목별 국내 도매유통가격 추이에서 나타난다. 미국산 갈비가 연초 대비 하락을 보이긴 했으나 예년 대비로 보면 모든 품목의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가정소비가

<그림 2> 월별 수입실적 및 주요 품목 국내 도매가격 추이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크게 증가하며 '21년 수입은 오히려 전년대비 약 3만3천톤(7.9%)이 증가한 약 45만3천톤의 실적을 보였다. '22년에도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어 4월까지 약 15만톤의 쇠고기가 수입되며 매월 약 3만7천톤의 물량이 꾸준히 수입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약 1만톤(6.9%)이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한편 최근 국내 수입육 소비상황은 전반적으로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오퍼가격으로 인해 수입업체 손익은 올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이류 품목은 질병 확산으로 외식 소비가 계속 부진하고 가정수요 위주의 소비양상을 보였지만, 4월 중순경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외식소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물류문제로 냉장육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운송 지연된 물량들이 한꺼번에 한국에 도착하는 경우 유통기한

이 짧게 남아버린 제품들을 시중에 덤핑처리하거나 냉동 전환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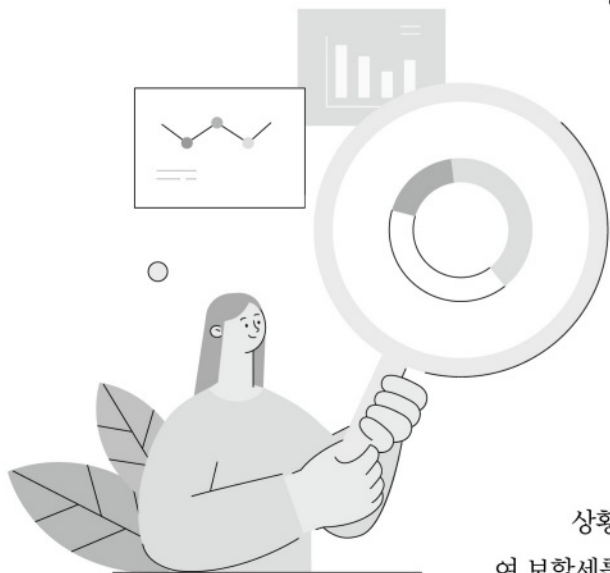
한편 목심 및 전각 등의 정육류는 주 수입원인 호주에서의 수입감소로 인해 공급은 불안하지만, 수요측면에서는 HMR 및 밀키트 시장 등에서의 고정수요가 꾸준하고 급식식자재 수요도 점점 살아나기 때문에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단일품목으로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갈

비는 최종수요가 크지 않지만 재고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추석명절 수요가 조만간 생겨날 것으로 보

여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3. 하반기 쇠고기 시장 전망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며 코로나19는 다시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월 31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35%인 약 1천 8백만 명을 넘어섰는데, 무증상 감염자까지 생각하면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감염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예전과 같이 강하게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직 제한사항이 있는 해외여행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은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한우시장 상황은 상반기 보다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관측에 의하면 한우 사육 마릿수는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355만 마리를 초과하고, '23년에 3,609천 마리까지 증가하여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도축 마릿수도 올해 85~86만 마리로 전년대비 약 7~8% 증가하고, '24년에 101~102만 마리까지 증가하여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육 증가로 올해 하반기에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더해 사료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압박 및 정부의 암소감축 추진 등으로 암소 도축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공급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요측면에서는, 가격에 관계없이 소비하는 부유층의 고급육 한우수요가 이어지겠으나 전체적인 수요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외식소비 증가에 따른 가정소비 감소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될 기준금



리로 인한 서민층의 주머니 사정 악화 등이 소비감소 요인이다. 이에 서민층이 주로 소비하는 1등급 이하 저등급 판매가 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우가격도 하반기에는 추석명절 수요 이외에는 약세를 보여 평균 18~19천원/kg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연평균 가격도 평년 보다는 높지만 전년대비 하락세를 보인 약 19천원/kg 내외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국내 수입육 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하여 외식 및 급식식자재 등에서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오퍼가격은 미국의 성수기(독립기념일 및 휴가시즌) 수요가 종료되면 하락세를 보여 국내 도매유통 가격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오퍼가격이 예전과 같은 가격대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입육 시장은 이미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고정수요처도 있기 때문에 수입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에 수입량은 매월 3만5천~4만톤의 물량이 꾸준히 수입되어, 연간 실적으로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약 46~48만톤의 물량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산업 이대로는 공멸 자초 위기 수급조절 적극 동참해야



글. 박하늘 기자(농민신문)

한우고기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는 이미 더 지적하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널리 알려진 문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한우 도축마릿수는 지난해 도축마릿수(79만4000마리)를 훌쩍 뛰어넘어 86만마리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이는 과거 공급과잉에 따라 큰 폭의 가격하락이 있었던 2012년도의 도축마릿수(84만마리)보다도 많은 수치다. 평균 경락값이 1kg당 1만6000원대에서 1만2000원대로 떨어지면서 농가 피해가 커졌던 게 불과 10년 전의 일이다.

내년도 도축마릿수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93만6000마리에 이를 전망이다. 2024년에는 100만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력제 등을 종합해 현재 사육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추산된 결과다. 그 어떤 예상보다 큰



거가 확실하고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공급량이 늘더라도 소비가 그만큼 뒷받침을 해준다면 가격 폭락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급 증가폭이 커도 너무 크다. 아무리 소비활성화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이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특수도 이제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많은 유통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인구 감소는 현실화하고 있고 여전히 한우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도 극소수 도시국가 정도에 그친다. 결국 소비 수준은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이란 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미 수없이 많은 기관 언론이 공급과잉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를 위한 대책도 있지만, 실제 현장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암소 감축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암소 증가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한우 암소 사육마릿수는 지난해 3월보다 11만3000마리 증가한 218만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송아지가 모두 105만6000마리가 생산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3.9% 늘어난 수준이다. 송아지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

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번식농가는 송아지 생산을 꾸준히 늘린 셈이며, 비육농가는 축사 내 입식을 지속적으로 늘린 셈이다.

실제 가축시장에서 만난 농가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공급과잉 우려는 ‘남의 일’ 이야기하듯 하는 분위기가 감지돼 기자 입장에선 큰 충격이었다. 한 농가는 “공급과잉이 벌어지더라도 예전처럼 크게 폭락하겠느냐”면서 “걱정은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지금 당장은 지옥값이 나쁘지 않은데 축사를 늘리는 게 말이되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농가는 “우리 농장에서 입식을 줄이더라도 옆에 농장에선 계속 입식을 늘리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겠느냐”면서 “기자양반이라면 당장 나만 바보가 되는 상황에서 가만히 놓고만 있겠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사육규모가 큰 대규모 농가일수록 사육마릿수가 더 많이 늘어난 것도 안타까운 대목이다. 100마리 이상을 키우는 대규모 농장의 경우 지난해 3월 69만6000마리에서 올해 3월 75만4000마리로 5만8000마리가 늘었다. 50~99마리 규모 농장의 3월 사육마릿수는 59만2000마리로 지난해 대비 4만7000마리 늘어났다. 49마리 미만의 농장에선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전업농 이상의 대군농가들은 경고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육규모를 늘리면서 산업 전체의 위기감은 더욱 커진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가 내돈을 투자해서 사육마릿수를 늘리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나”고 되물을 수도 있겠다. 얼핏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각 농가마다 강제로 사육마릿수를 줄이도록 할 수 있는 법도 없다. 정말 자본주의식

으로, 경제논리대로만 하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시장에 내버려두면 된다. 경제학에선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경쟁력이 없는 생산주체들은 그만큼 시장에서 퇴출되고 가르친다. 그 결과 공급량이 줄면서 다시 가격이 오르게 되고 가격은 균형점을 찾게 된다. 지금처럼 어떠한 경고나 정책적 유도(암소비육지원사업)도 무시한 채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결국엔 수많은 농가들이 도산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며 그리고 나선 또다시 가격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란 의미다.

이것이 한우농가나 정부가 모두 원하는 결말인가. 아닐 것이다. 한우농가가 아니더라도 한우산업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선 앞서 언급한 대로 강제로 사육마릿수를 줄일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협회나 농협 등과 협업해서 사육마릿수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가격폭락이 현실화한다면 그 때는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 농가 스스로가 공급과잉을 막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가격 폭락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정부에 차액보전금을 요청하거나 농협에 수매를 요청한다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 과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이미 국민들이 다른 대체재로 눈을 돌리고 난 뒤는 아닐까.

만에 하나 한우산업의 공멸을 원한다면? 수급조절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일 것 같다.

소 이력정보를 활용한 2022년 한우산업 현황 분석



글 이호철 처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처)



2021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우산업은 다른 축산물에 비해 호황을 누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호황 속에서도 사육마릿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사료비 상승은 한우 농가의 불안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소 이력정보를 활용하여 2022년 한우산업의 현황 분석과 향후 전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한우 사육두수는 2016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5월 351만 두를 넘어섰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2017~2018년 1~2%에서 2021년 이후에는 5%를 돌파하는 등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한우 농장수는 2015년 110천 농장에서 2022년 5월 현재 89천 농장으로 약 19.1% 감소하였고, 농장 당 평균 사육두수는 2015년 25.5두에서 2022년 39.4두로 13.9두(54.5%) 증가하였다.

2022년 5월 사육규모별로 50두 미만의 농장수는 6만 8천호이며, 사육두수는 109만 8천두로 농장수와 사육두수 모두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50두 이상 농장은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100두 이상 농장의 사육두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사육두수는 149만 3천두로 2015년(104만 4천두) 대비 43.0% 증가하였다.

<표1> 한우 사육규모별 농장 및 사육현황

(단위: 천 농장, 천 두, %)

구분	농장수								사육두수							
	'15. 5.	'16. 5.	'17. 5.	'18. 5.	'19. 5.	'20. 5.	'21. 5.	'22. 5.	'15. 5.	'16. 5.	'17. 5.	'18. 5.	'19. 5.	'20. 5.	'21. 5.	'22. 5.
계	106	99	96	93	91	89	90	89	2,856	2,818	2,882	2,925	3,048	3,175	3,344	3,511
50두 미만	91	84	80	76	73	70	69	68	1,123	1,070	1,052	1,041	1,046	1,058	1,088	1,098
	(85.2)	(84.3)	(83.0)	(81.9)	(80.4)	(79.0)	(77.4)	(75.8)	(39.3)	(38.0)	(36.5)	(35.6)	(34.3)	(33.3)	(32.5)	(31.3)
50두 이상	16	16	16	17	18	19	20	22	1,733	1,748	1,831	1,883	2,002	2,117	2,256	2,413
	(14.8)	(15.7)	(17.0)	(18.1)	(19.6)	(21.0)	(22.6)	(24.2)	(60.7)	(62.0)	(63.5)	(64.4)	(65.7)	(66.7)	(67.5)	(68.7)
50~99두	10	10	10	10	11	11	12	13	689	679	699	721	757	794	863	920
	(9.3)	(9.8)	(10.5)	(11.2)	(11.9)	(12.8)	(13.8)	(14.8)	(24.1)	(24.1)	(24.3)	(24.6)	(24.8)	(25.0)	(25.8)	(26.2)
100두 이상	6	6	6	6	7	7	8	8	1,044	1,069	1,131	1,163	1,246	1,322	1,393	1,493
	(5.5)	(5.9)	(6.5)	(7.0)	(7.6)	(8.3)	(8.7)	(9.5)	(36.6)	(37.9)	(39.3)	(39.8)	(40.9)	(41.6)	(41.6)	(42.5)

* 괄호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한우 암소의 경우 223만 5천 두로 전년 동월 대비 4.8%가 증가하였고, 이 중 60개월령 이상은 39만 3천 두로 7.8% 증가하여 암소 전체 증가폭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우 수소(거세포함)는 127만 6천 두로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하였고, 출하시기가 임박한 25~28개월령은 20만 9천 두로 전년 동월대비 5.7% 증가한 데 반해 29개월령 이상은 6만 6천 두로 전년 동월 대비 15.2%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2년 1~5월까지 한우 거래두수는 697천 두로 유형별로 볼 때, 도축장 출하가 49.1%(342천 두)로 가장 많았고, 가축시장 거래 27.2%(190천 두), 농장 간 거래 23.7%(165천 두) 순이었다. 농장 간 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2.8%p(30.0%→27.2%) 감소하였고, 가축시장 거래는 2.9%p(20.8%→23.7%) 증가하였다. 또한 6개월 미만 송아지 거래는 주로 농장 간 거래가 97.6%였고, 6~12개월 미만 송아지 거래는 주로 가축시장에서 66.3%, 12개월 이상은 도축장 출하가 71.0%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한우 거래동향

(단위: 두, %)

구분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계	비율
		두수	비율	두수	비율	두수	비율		
'21년 1~5월	농장 간 거래	20,446	98.0	79,797	38.3	138,251	28.1	194,371	30.0
	가축시장 거래	409	2.0	128,257	61.5	35,135	7.1	134,704	20.8
	도축장 출하	2	0.0	377	0.2	318,392	64.7	318,771	49.2
	계	20,857	100.0	208,431	100.0	491,778	100.0	647,846	100.0
'22년 1~5월	농장 간 거래	15,384	97.6	66,694	33.4	107,661	22.4	189,739	27.2
	가축시장 거래	372	2.4	132,621	66.3	31,879	6.6	164,872	23.7
	도축장 출하	0	0.0	593	0.3	341,734	71.0	342,327	49.1
	계	15,756	100.0	199,908	100.0	481,274	100.0	696,938	100.0

그림1-1. 한우 사육두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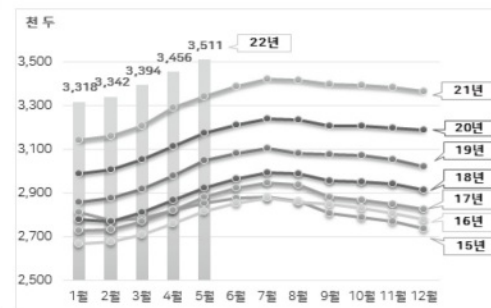


그림1-2. 한우 농장수 및 농장당 사육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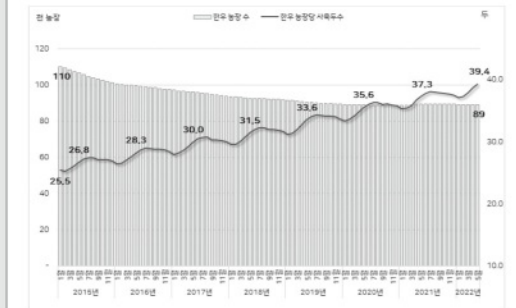


그림2-1. 한우 성별 산지가격 추이(6~7개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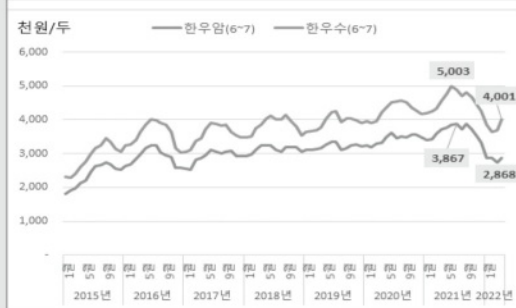


그림2-2. 한우 산지가격 비교(연간 vs 1~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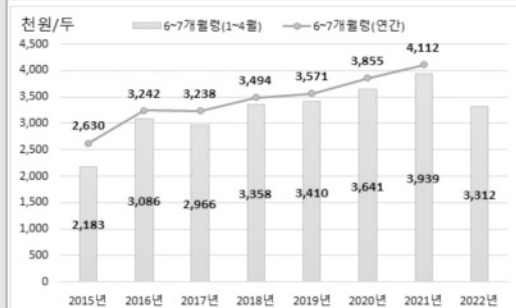


그림3-1. 연도별 한우 성별 도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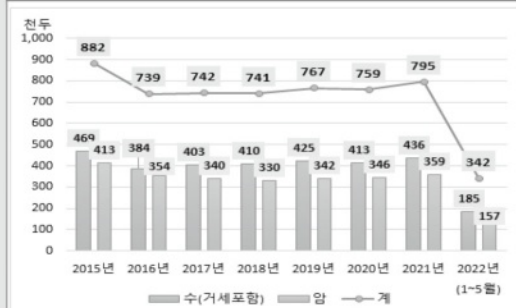


그림3-2. 한우 성별 도축추이(1~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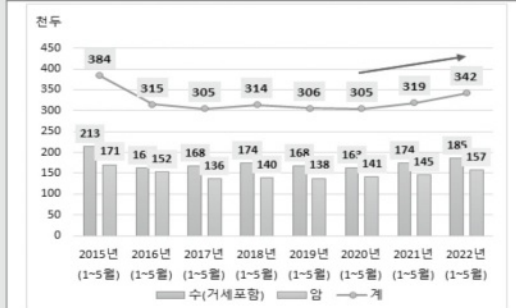


그림4-1. 1~5월 한우 도매가격 추이(결합, 등외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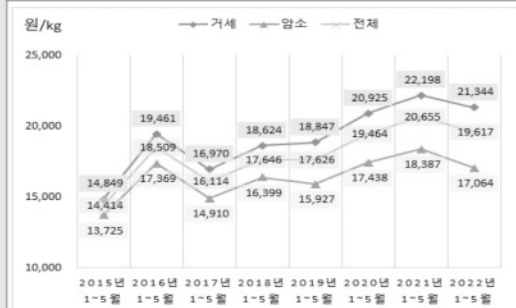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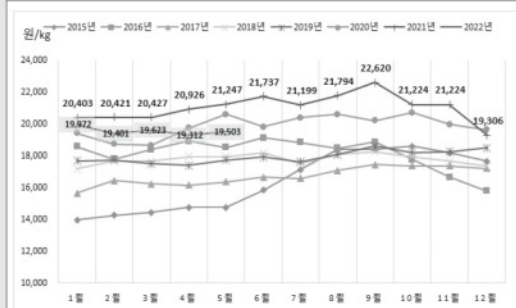


그림4-2. 월별 한우 도매가격 추이



한우 송아지
(6~7개월령)
산지가격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22년 4월 한우 암송아지는 287만원, 수송아지는 400만원에 거래되어 전년 동월대비 각각 23.1%, 12.3% 하락하여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송아지 입식열기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한우
도축두수는

2015년 88만 2천두 도축된 이후 2016년~2020년까지 연평균 75만 두가 도축되었으며, 2021년에는 79만 5천 두가 도축되었다. 2022년 1~5월까지 한우 도축두수는 34만 2천 두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하였으며, 수소(거세우 포함) 도축은 18만 5천 두, 암소는 15만 7천 두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 8.2% 증가하였다.

2022년
전국 도매시장
한우 경락가격은

전년 동기간 대비 낮은 수준으로 2022년 1~5월까지 한우 전체 경락가격은 19,617원/kg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0% 하락하였으며, 한우 거세 또한 21,344원/kg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8% 하락하여 그간의 가격 상승세는 꺾였지만, 여전히 평년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4월의 한우 경락가격은 19,312원/kg으로 2020년 3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저가격을 형성하여 전월(19,623원/kg) 대비 1.6%, 전년 동월(20,926원/kg) 대비 7.7%씩 각각 하락하였다.

한우 평균
도축개월령은

암소의 경우 2015년 5월 51.8개월령에서 2022년 5월에는 56.8개월령으로 5.0개월 증가하였고, 거세의 경우 2015년 5월 31.8개월령에서 2020년 5월에는 30.0개월령으로 1.8개월 단축되었다. 하지만 2021년 5월 이후 평균 도축개월령이 증가하는 등 출하지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 한우 성별 평균
도축개월령
(단위: 개월령)

구분	'15.5월	'16.5월	'17.5월	'18.5월	'19.5월	'20.5월	'21.5월	'22.5월
암	51.8	52.4	53.5	54.3	54.1	55.3	55.9	56.8
거세	31.8	31.3	31.3	30.5	30.3	30.0	30.1	30.6

2022년 5월 말일
기준 23개월령
이상의 수소는

2022년 하반기(6~12월)에 출하가 가능한 것으로 총 36만 3천두가 있으며, 전년 동월대비 6.9%가 많다. 또한 추석성수기에 출하가 예상되는 27개월령 수소는 5만 5천 두, 설 성수기에 출하가 가능한 23개월령은 4만 두로, 전년 동월대비 각각 4.9%, 2.8% 많다.



표3. 한우 수소(거세포함) 개월령별 사육현황

(단위: 천 두, %)

월령 기준월	22	23	24	25	26	27	28	29이상	23이상	계 (전체)
'21. 5.	35	39	45	56	62	52	27	57	339	1,210
'22. 5.	36	40	48	58	64	55	32	66	363	1,276
	(3.7)	(2.8)	(5.2)	(3.4)	(3.6)	(4.9)	(16.3)	(15.2)	(6.9)	(5.5)
출하 예상시기	'23. 1. 설 1.22	'22. 12.	'22. 11.	'22. 10.	'22. 9. 추석 9.10.	'22. 8.	'22. 7.	'22. 6.	'22년하반기	계 (전체)

* 괄호 ()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임

2022년 한우 평균 사육두수는 전년 333만 두 대비 18만 두 증가한 352만 두로 예상하고, 연중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7월에는 360만 두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년 한우 도축두수는 전년 80만 두 대비 7.8% 증가한 86만 두 내외, 2023년에는 90만 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 국내 사료값 인상 등으로 생산원가 증가에 따른 부담감이 높아지고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시기로 한우 사육농가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거세우 적기 출하, 송아지 생산억제, 저능력 암소 도태 등 수급조절 사업에 대규모 농장이 선도적으로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슬기로운 출하요령

전국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 농가가 원하는 적기 출하
- 경매 상장 수수료 無
- 운송비 절감
- 하자육 발생시 농가 손실 방지제도 운영



• 한 차(8두 기준) 출하, 100만원 이상 이득 ⇒ **농가수익개선**

전국한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유통망은 부산물 제값받기와 적기출하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한우협회 전용 도축유통망입니다. 경매 상장수수료가 없고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영안정에 유익합니다.

◆출하 신청방법 (☎ 02-525-1053)

- 담당 : 유통사업국 박호경 대리(내선 207)
- 시기 : 출하 계획 14일~30일전 협회로 신청
- 접수 : 중앙회 담당직원 연락 또는 시군지부 접수
- 팩스 : 02-525-1054

◆정산기준

구분	거세우	암소	비고
출하규격 (지육중량)	27개월령 이상 36개월령 이하 380kg이상 600kg이하	26개월령 이상 60개월령 이하 300kg이상 550kg 이하	※ 등심단면적 기준 (거세) 86㎢ 이상 110㎢이하 (암소) 76㎢ 이상 100㎢이하
가격적용 기준	농협 음성공판장 화,수,목,금 평균가	음성공판장 화,수,목 평균가	
부산물	두·내장·우족은 농협 음성공판장 가격 적용		우피는 당해 도축장 가격에 따름
하자육 처리	근출혈 보상보험 두당 8,500원		하자육 금액이 kg당 1,000원 이상으로 발생시 일부 자부담 발생
출하장려금	(거세, 두당 7만원) 도체중 420kg~560kg이하, 월령 30~34개월이하, 등심단면적 86㎢이상 (암소, 두당 12만원) 도체중 350kg~550kg이하, 월령 28~60개월이하, 등심단면적 76㎢이상		





청운농장
유병운 대표

글·사진 박현욱 기자
(농축유통신문)

한우 명문 청운농장의 비결은 ‘협회전용사료’

“
송아지 뒤탈 한 번 없는
품질·가격 경쟁력 최고
”

번식농장 롤모델 구축 ‘위생청결’이 핵심
협회전용사료 ‘대한한우’ 우량 농장 구축 큰 힘
협회·농가 협력 미래 한우산업 담보할 것

충남 당진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유병운 청운농장 대표는 송아지 변을 확인하는 일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다. 새벽의 맑은 공기가 짙은 밤 기운을 물리칠 때 즈음이면 유 대표는 어김없이 축사를 한 바퀴 휘돈다. 송아지 변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 송아지 영양상태는 물론이거니와 위생, 스트레스 지수 등 양질의 정보가 한가득이다. 세심하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고 무심하면 그냥 지나치기 일쑤인 고급 지표다. 36년간 한우 사육, 그중에서도 번식농장을 업으로 삼은 유병운 대표는 번식농가를 ‘한우산업의 꽃’이라 규정한다. 특히 한우인들의 사육 주권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철학을 강조하며 한우협회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좌우하죠. 특히 번식농장은 위생에 신경써야 합니다. 송아지 백신은 물론이고 먹는 물, 초유의 위생, 운동장 상태 등 송아지가 자라는 환경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면밀한 보살핌이 필요하죠. 번식농장의 첫걸음입니다.”

유 대표의 농장은 축사 특유의 냄새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말끔한 정리·정돈 농장으로도 유명하다. 한우가 살아가는 청결한 환경은 어미 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좋은 송아지를 배출하기 위해 어미소들의 영양상태도 꼼꼼히 따진다는 유 대표는 농장 관리의 기본만 지키면 된다고 말한다.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깨끗하게 해주면 잘 자랍니다.”

충남 1등 송아지 배출 기염 번식농장 롤 모델 유명세 떨쳐

청운농장 곳곳에는 유 대표 손길이 곳곳에 남아있다. 어느 곳 하나 번잡한 곳 없이 말끔하다. 청결과 위생을 한우 사육 일 순위로 꼽는 그는 20대 청년 시절 두 마리의 한우로 시작해 지금은 번식우 170두의 어엿한 번식농장으로 규모를 키웠다. 충남 당진에서 알아주는 송아지 농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청운농장은 외부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유명하다. 1990년대 초반 이미 한우경진대회에서 충남 1등 한우를 배출한 이후 한우 명문 농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청년 시절 한우 부가가치에 주목했죠. 5천 년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한우이고 농촌에서 이만큼 부가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축종이 없었죠. 한우 사육을 시작한 계기입니다. 특히 한우 번식은 산업의 기반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36년간 한우를 사육하다보니 이제 한우는 제 인생과도 궤를 함께 합니다.”

청운농장의 소들은 귀 양쪽에 귀표를 달고 있다. 유 대표만의 사육 방식이다. 오른쪽 푸른색 귀표에는 태어난 날짜, 어미 번호 등이 꼼꼼하게 기록돼 있다. 누구나 이력 개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 대표만의 시스템을 구축한 셈이다.

“송아지 아기 다루 듯해야” ‘청결·위생’ 세심한 손길이 노하우

유 대표의 철칙 중 하나는 송아지를 아기 다루 듯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키우지 않으면 금방 표가 난다는 게 유 대표의 말이다. 송아지 아빠로 불리는 유 대표의 평소 철학답게 청운농장의 송아지들은 때깔부터 남다르다. 털은 윤기가 흐르고 눈빛은 초롱초롱하다. 탄력 있는 피부와 힘찬 발걸음은 송아지의 영양상태와 건강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증표다.

“모든 축산농장의 책임은 농장주한테 있습니다. 농장주의 축사 관리가 가축의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
정성이 숨어있죠.
농장주의 세밀한 관리가
지금의 청운농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우협 전용사료 메신저 역할 "한우협 사료는 뒤탈이 없다"

“한우는 위생뿐만 아니라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한데 한우협회 전용사료의 덕을 톡톡히 봤어요. 특히 협회의 어린 송아지 사료는 품질을 자부할 만큼 질이 좋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딜 가나 한우협회 전용 사료 자랑하기에 바쁘다니가요.”

유 대표는 전국한우협회 전용 사료가 론칭될 당시 협회 사료로 전량 바꿨다. 사료 선택은 한우 농가들에게는 수익과 직결될 정도로 중요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우인이란 마땅히 한우협회 사료를 이용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오히려 협회 전용사료를 사용해 보고 더욱 믿음이 갔다는 그는 이제 한우협회 사료 메신저로도 활약하고 있다.



눈치 보지 않고 사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나 사육 주권을 당당하게 외칠 권리는 협회 이외의 조직이나 단체에 귀속되지 않는 사육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한우인들도 마인드가 바뀌어야 합니다. 한우협회가 농가를 위한 제도나 사업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협회 사업에 동참해 한우인 스스로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앙회에서 심사숙고해 힘들게 구축해 놓은 다양한 사업들은 농가들에게 무형의 자산으로 보답할 겁니다.”

유 대표는 한우협회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한우협회 전용사료 홍보에 미진한 지역·지부도 지역 네트워크에 구애받지 않는 자신감과 한우인으로서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우협회가 농가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을 때 비로소 협회의 위상과 농가들의 위상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유 대표의 생각이다.

“수십 년간 한우를 사육한 사람으로서 이제 농가들의 권리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고집이 필요합니다. 협회와 한우 농민의 끈끈한 협력이 지속된다면 향후 오천 년 한우산업이 담보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사료가 정말 생산자 입장에서 만든 사료거든요. 질이 아주 좋아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협회에서 수익 없이 만든 사료니 오죽하겠어요. 특히 어린 송아지에게 먹이고 난 후 설사와 같은 뒤탈이 없어요. 제가 우시장에서 매번 송아지 품질에 대해서는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데 한우협회 사료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이 같은 사료는 농가들을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야 합니다.”

협회 사업 무형 자산 보답할 것 협회·농가 협력 시너지 창출 필요

“한우협회 사료를 아직도 모르는 농가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유명 사료 브랜드에 견줘 홍보가 미흡하지만 품질은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 없습니다.”

유 대표는 한우협회 전용 사료에 한우 농가 스스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우협 사료는 일반 배합사료 가격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가져서다. 한우농가 스스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료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게 유 대표의 평소 지론이다.



2022 가정의달 한우할인판매 행사 ‘감사한우’

‘감사한우!’

청계광장서 한우고기
최대 50% 할인행사 생료

2022 가정의달 맞이 한우할인판매 현장

우리 협회 중앙회는 가정의달을 맞아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우고기를 최대 50% 할인하는

‘2022 가정의달 감사한우’한우할인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9만 한우농가가 조성하는 한우자조금을 활용해 진행된

이번 감사한우 직거래 한우할인판매는

오는 19일(목)부터 21일(토) 3일간 10시부터 20시까지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진행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한우고기 1등급 기준 100g당

▲등심 7,900원 ▲안심 11,800원 ▲채끝 8,800원

▲불고기 2,900원 ▲양지 4,900원에 판매했다.

1등급 외에도 원플, 투플러스 등급 한우까지 다양하게 준비됐다.

현장구매고객 대상으로 감사이벤트도 진행했는데,

특히 큰 호응을 얻었다. 구매 영수증을 응모하면 광 없는

한우복권을 긁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를 통해

한우선물세트, 한우밀키트, 한우곰탕, 롯데리아 한우불고기세트 교환권 등을 증정했다.

이밖에도 SNS인증 이벤트를 통해서도 한우 굿즈를 증정하기도 했다.

THANKS HANWOO

행사장에서는 영양지원이 필요한
결식계층에게 지원할
한우나눔 기념식도 진행됐다.
한우불고기와 한우차돌된장찌개 등
한우밀키트 제품이 서울잇다푸드뱅크로 기
부돼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삼주 회장은
“이번 감사한우 할인판매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한우를 사랑해 준 국민에게
보답하기 위한 한우농가들의 진심”이라며
“9만 한우농가들이 한우와 함께하는
즐거운 일상회복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YTN 기상뉴스 촬영 및 행사장 소개모습



영수증 복권이벤트 한우선물세트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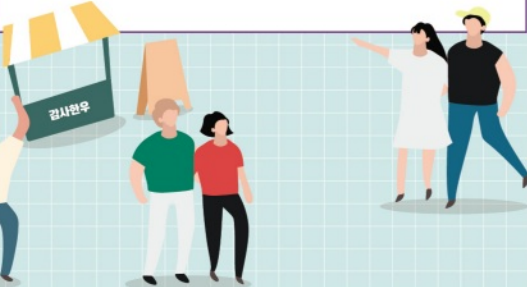
서울잇다푸드뱅크 한우나눔 전달식



행사장을 둘러보는 김삼주 회장(좌측 두 번째) 및 황재택 전무
(맨 우측),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좌측 첫 번째)



한우할인판매 행사 입장 대기줄



청계광장 행사 방송 홍보 인터뷰중인 김삼주 회장



SNS이벤트에 참여하는 서울시민



복권이벤트에 참여하는 서울시민



청계광장 버스킹과 함께하는 가정의달 행사장



한우할인판매 행사장 구매 대기줄

2022 감사한우 청계광장 행사가격

(단위: 원)

행사품목		등급별 행사가			비고
		1++	1+	1	
구이류	등심	10,900	8,900	7,900	35% 할인
	안심	13,500	12,500	11,800	25% 할인
	채끝	11,900	10,200	8,800	35% 할인
국거리, 불고기		3,500	3,300	2,900	50% 할인
양지		5,700	5,400	4,900	20% 할인

총 매출액 **518,844,000** 원

정인철

전국한우협회 울산광역시지회장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한우농가 권익보호에 집중

“한우할인판매도 스마트하게! QR코드 예약제 도입”

글·사진 이현우 기자(한국농어민신문)

“소비자들의 예약을 받으면
물량 수급 조절도 가능하다.
예약자들에게겐 할인 혜택을
더 주면 홍보 효과도 크다.
행정기관 통해 처음 시도했는데
호응이 좋았다”

울산광역시지회는 지난 5월 가정의 달 행사에서 한우고기 판매에 QR코드 예약제라는 시스템을 처음 선보였다. 가정의 달 관련 한우고기 할인 판매 행사에서 소비자들이 해당 QR코드를 통해 예약 주문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정인철 울산시지회장은 “소비자들의 예약을 받으면 물량 수급 조절도 가능하다. 예약자들에게겐 할인 혜택을 더 주면 홍보 효과도 크다. 행정기관 통해 처음 시도했는데 호응이 좋았다”고 회상했다.

그의 말처럼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았다. 30% 이상 저렴하게 한우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QR코드를 통한 한우고기 구매 예약률은 20%가 넘었고 5월 3일과 4일에 이어 6일에도 울주군청 주차장에서 열린 소비축진행사의 매출액은 1억 원이 넘었다.

정인철 지회장은 “우리 지역에서 길러진 소를 사용하는 곳을 통해 한우고기를 판매했다. 한우고기 판매 이동차량으로 이 정도 매출액을 달성한 것은 성공적”이라며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공간을 군청에서 충분히 제공해줬다. 이곳이 한우 소비축진 행사를 하는 장소로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행사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품질이 좋은 한우고기를 30% 이상 할인 판매하니 오늘 오셨던 분이 다음 날 와서 구매하시는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주셨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주시니 활기 넘쳐서 좋았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5월 가정의 달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정인철 지회장은 이제 한우 산업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발등에 떨어진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울산 지역에서 한우 농가들이 체감하는 가장 심각한 현안은 환경 문제다. 그런데 우리 지역 골프장이 들어서서 과정에서 땅이 80% 정도 수용돼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 퇴비장이 2~3년 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우 농가를 비롯한 축산 농가들의 분뇨 처리에 애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당선된 시장·군수 등과 새롭게 퇴비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가축재해보험의 문제점 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여건상 축사를 두 곳으로 나눈 농가는 한 곳만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두 규모의 소규모 농가가 20두·30두로 축사를 각각 나누면 한 곳만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반면, 300~400두 키워도 축사가 한 곳이면 모든 두수 가입이 가능하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규정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당선된 한우자조금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역할도 톡톡히 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인철 지회장은 “의장으로서 한우자조금이 농가들과 한우 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

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려고 한다”며 “한우산업이 환경을 보호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농업 부산물 등을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점 등을 부각하는 영상을 만들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자 그는 “자조금을 활용한 한우 홍보 패턴을 바꿔야 한다. 수입육을 먹지 말라는 방식의 홍보 보단 한우는 환경을 지키는 산업인 만큼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우 산업이 사회 기여가 높은 산업이라는 점을 알리고 소비자들에게 깊숙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TV광고에만 집중하는 것 보단 유튜브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인철 지회장은 올해로 울산광역시지회를 맡은 지 4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CCTV사업, 헬퍼사업, 전기노후시설 개보수사업 등 농가들의 이익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앞장섰다. 그는 “농가당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전기노후시설을 점검해주는 사업이 농가들의 호응이 좋았다. 해당 사업을 신청했던 농가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참여하지 않은 후 불이 난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웠다. 그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들을 위한 사업을 올해도 다양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매일 울산광역시지회 사무실로 출·퇴근하고 한우 산업 나아가 축산 현안 해결을 위해 공무원을 만나고 농가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느라 하루하루가 바쁜 정인철 지회장.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그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질 전망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한우 갈빗살

축산식육식당



경북 영주에서 축산식육식당을 찾아 가는 방법은 간단하다. 어디서든 택시를 타고 '식육식당 가자'는 한마디만 하면 된다. 매장 곳곳에 걸려 있는 한우판매점 인증마크와 중기부 선정 백년가게, 축산기업중앙회 선정 식육 판매모범업소, 영주시 지정 영주맛집 및 모범업소 등 수많은 인증서와 경상북도지사 표창 등이 이곳의 명성을 대신한다.

1 영주 구도심 '인생고깃길'에 자리한 축산식육식당 전경.

2 위로부터 한우곰탕, 육회, 갈빗살, 차돌박이.



3

84년 한우 파는 정육식당으로 시작

축산식육식당은 1984년 정육식당으로 출발해 1996년 현재의 신인식 대표가 경영을 물려받으면서 구이전문점으로 전향했다.

신인식 대표의 일과는 매일 오전 농가에서 들어온 갈비 지육을 손질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는 “갈비 한쪽에서 불필요한 지방과 뼈를 다 드러내면 갈빗살로 판매할 수 있는 분량은 12근(7.2kg) 정도”라며 “1인분 중량이 150g이니 이 커다란 갈비쪽에서 얻을 수 있는 갈빗살은 겨우 48인분이다. 수율이 정말 적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판매가격은 저렴하다. 1인분 기준 3만원으로 서울 판매가와 비교하자면 2/3 정도. 신 대표의 노동력과 최고급에 속하는 1+ 또는 1++ 등급을 고려한다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할 정도다.

3 한우 갈비를 손질하고 있는 신인식 대표.

4 김미향-신인식 대표 부부.



축산
식육식당

우리한우판매점
대한민국
한우만
판매합니다!

정육식당
한우 갈비
한우 소고기
한우 갈비
한우 소고기
한우 갈비
한우 소고기
한우 갈비
한우 소고기

단골들은 안다.

갈빗살의
제대로 된 맛을

즐거기에

축산식육식당만한 곳이

없다는 것을

4

갈비 한쪽을 손질하는 데는 꼬박 한시간이 걸린다. 지방 덩어리를 걷어내면서 중간중간 숨어 있는 살코기를 부위별로 세밀하게 나누고 뼈를 바르는 작업까지 마치면 크기와 모양, 지방함량이 다른 수십개의 갈빗살 조각이 나온다. 모두 같은 갈빗살인데 고깃결과 마블링의 모양새가 제각각인 것이 신기하다. “서울 사람들이 살치살, 갈비꽃살 등 특수부위로 이름 붙여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모두 이 갈비에서 나오는 부위들이다. 똑같은 갈빗살이라도 부위에 따라 맛이 다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붙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식육식당에서는 이 모든 부위를 고루 섞어 1인분을 만든다. 따라서 갈빗살 한접시에 담아내는 고기들 모양새가 조금씩 다르다. 처음 오는 이들은 ‘왜 다른 부위를 섞어서 주냐’고 묻기도 한다고. 하지만 단골들은 안다. 갈빗살의 제대로 된 맛을 즐기기에 축산식육식당만한 곳이 없다는 것을 말이다.



갓 썰어낸 갈빗살.
한우 1++ 또는 1+ 등급만을 사용한다.

특별한 차돌박이 5000원짜리 한우곰탕

축산식육식당에서 꼭 맛봐야 할 또 하나가 바로 차돌박이다. 신인식 대표에 따르면 서울서 판매하는 차돌박이는 로스를 줄이기 위해 덩어리 그대로 육절기로 썰어내지만 그렇게 하면 차돌박이의 참맛을 느낄 수 없다. 차돌박이 덩어리를 스테이크처럼 두껍게 썬 뒤 양 끝에 붙어 있는 지방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손으로 얇게 썰어내는 것이 신대표의 방식. “이렇게 만든 차돌박이는 회로 먹어도 맛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갈빗살을 정형하고 남은 갈빗대로는 곰탕을 끓인다. 보기만 해도 진한 국물에 뼈에 붙은 고기까지 넉넉히 들어가 있는데 가격은 5000원이라 한다. ‘어르신들 부담 없이 와서 드시라고’ 수년째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우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 그리고 고객을 배려하는 신인식 대표의 경영철학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코스로
즐기는
고급
한우의
맛

수이재1928



한우만
판매합니다!



전통과 현대적 인테리어가 조화로운 내부.

고택에서
코스로 즐기는
한우 요리의 향연은
그야말로
감동적이다.



수이재 외관. 1928년에 지은 고택을 옮겨 지었다.

충북 청주 시민이 손에 꼽는 특별한 한우 전문점이 있다. 바로 2016년 문을 연 수이재1928이다. 수의사가 관리하는 직영한우농장에서 건강하게 자란 고품질 한우를 품격 있는 상차림과 함께 선보이는 곳. 고택에서 코스로 즐기는 한우 요리의 향연은 그야말로 감동적이다.

한우와 고택의 아름다운 조화

수이재1928(이하 수이재)은 1928년에 지은 고택을 옮겨 2016년 문을 연 한우 고급육(1++, 1+) 전문점이다. 수의사가 관리하는 직영한우농장의 미경산우(출산을 하지 않은 어린 암소)를 주로 사용하며 거세한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지역 제철 식재료 활용을 원칙으로 하는 수이재는 코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한우 요리를 선보인다. 기본찬으로는 한우 구이와 잘 어울리는 과일로 맛을 낸 동치미와 매일 직접 만드는 겉절이, 그리고 낙지젓·마샐러드·명이 혹은 부지깽이 등을 낸다. 한우 구이에 곁들이는 소스는 구운 소금과 홀그레인머스터드, 그리고 생와사비로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다.

수이재의 대표로 꼽히는 S코스(5월 기준)는 아뮤즈 부쉬(봄냉이수프·칠리콘 카르네·육회·민들레국수)를 시작으로 샐러드, 애피타이저(문어), 클렌저(그라니타), 메인(한우숯불구이), 식사(차돌된장찌개·밥 혹은 소면), 디저트(아이스크림 혹은 차) 순으로 제공된다. 한우숯불구이는 안심, 꽃등심, 특수부위, 양념갈비살에 4종의 계절 가니쉬로 구성되며 직원이 직접 구워준다.



수이재 이해정 대표는 “수이재를 준비하면서 기존 한우 전문점과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 파인다이닝과 미쉐린 레스토랑 등 고급 다이닝 레스토랑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에 착안해 고급스러운 한우 코스 요리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명품으로 꼽히는 한우 암소만 고집

수이재에서 사용하는 모든 고기는 한우 암소다. 안심, 등심, 생갈비는 물론 새우살, 살치살, 안창살, 토시살, 업진살, 부채살, 제비추리 등 다양한 특수부위도 맛볼 수 있다. 한우의 깊은 맛을 끌어올리기 위한 숙성 과정도 거치는데 부위에 따라 최대 20여일 정도 소요된다. 한우숯불구이는 자체 제작한 불판 위에 올려 시간이 지나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에 재방문율이 높은 편이다.



이해정 대표는 “직영한우농장을 통해 질 좋은 원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것이 가능하다”라며 “한우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어린 한우 암소는 부드럽고 맛이 진하다. 특별한 재료를 더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맛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수이재에서 사용하는 30개월 전후의 미경산우와 1+, 1++ 등급 한우는 한우 중에서도 최고급으로 꼽힌다. 이해정 대표는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싶다. 육질 개선 연구도 필요하고, 다양한 메뉴 개발 역시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면서 좋은 식재료에 깊은 정성을 담아 대접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1 수이재에서는 고품질의 한우를 코스 요리로 즐길 수 있다.
- 2 S코스의 아뮤즈 부쉬 4종.
- 3 매장 한켠에 있는 한우 숙성고.

2022년 농촌진흥청

농업인 안전사고 제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5.11(수) - 7.10(일)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개인 또는 팀(3인 이내)

공모분야 |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① 농기계 사고 ③ 과도한 힘·동작에 의한 손상
② 넘어짐·떨어짐 사고 ④ 기타 농작업 재해

공모주제

4차 산업혁명기술 등을
적용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일정

접수 : 2022. 5. 11.(수) ~ 7. 10.(일) 18:00시 까지
심사 기간 : 2022. 7. 13(수) ~ 7. 29(금)
결과 발표 : 2022. 8. 1(월)

접수방법

공모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hurhur10@korea.kr)로 접수

공고문 및 제출서류 양식은 농촌진흥청 개청 60주년 기념행사
(www.농촌진흥청60주년.kr)에서 확인 가능

시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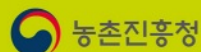
구분	시상수	각 시상금	시상내역
대상	1	200만원	농촌진흥청장상
금상	2	100만원	농촌진흥청장상
은상	2	50만원	국립농업과학원장상
동상	2	20만원	국립농업과학원장상

* 장려상 10명 : 상품권(5만원 상당)

문의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농업인안전보건팀 063-238-4268

주최·주관



국립한국농수산물대학교 교무처 장기현장실습팀
063)238-9030~9033

한국농수산대학교

2023학년도부터 학습중심 현장실습 도입

신규 장기현장실습장

중점 모집
기간 운영

신청기간: 2022년 6~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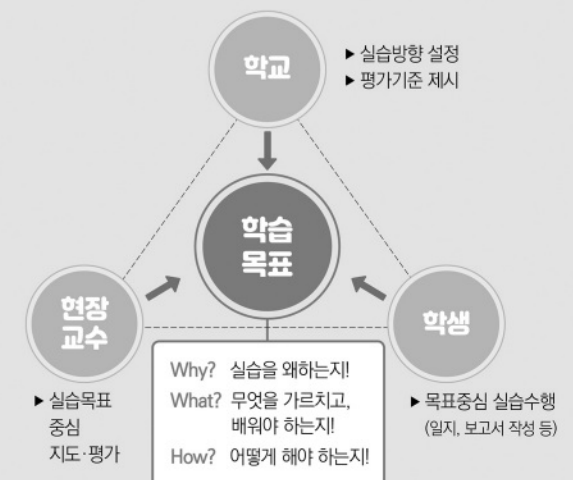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와 함께
청년농어업 인재 양성에 함께할 실습장·현장교수를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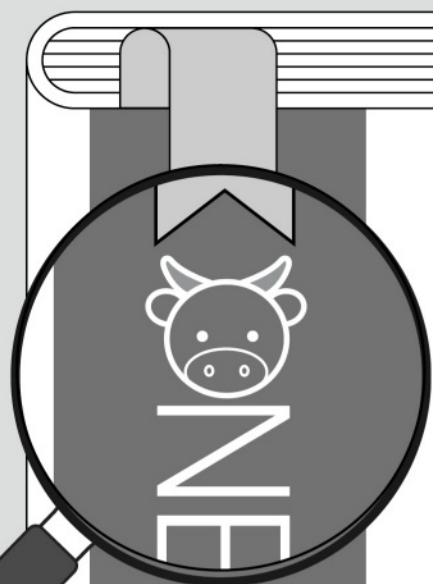
모집절차 및 개요

- 모집절차
신청접수(6~9월) → 현장실사(7~10월) → 심사확정(10~11월)
- 현장교수 역할
학생에게 작물재배부터 수확, 판매까지 전 과정을 체험하게 하여 졸업 후
농어장경영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
- 학습중심 현장실습이란?
실습장에서 정한 시기별 경영 계획에 따라 학생이 일을 하면서 체험학습을
하되, 전공별로 학교에서 정한 실습교과목별 학습목표를 달성하도록 초점을
맞춘 현장실습. 지금까지의 현장실습에 비추어 보다 학습이 강화된 실습을
의미함
-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은?
학생의 농어업 현장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8개월 동안 농어장 등에서 기술
·경영 체험을 하는 2학년 정규 교육과정(2학기 40학점)
- 실습장 및 현장교수 요건
 - 실습장: 현장실습교육에 적합한 기술력을 보유한 농어업경영체
 - 현장교수: 교육자적 소양과 덕망, 5년 이상의 영농(영어)경력, 고졸이상의
학력, 높은 책임감과 열의

학습목표 중심 장기현장실습 운영 방향

- 실습교과를 통해 학생이 배워야 할 핵심사항을 정의(Definition)
 - 학교(전공교수): 장기현장실습교육의 기본 방향 설정, 목표 중심 평가
 - 실습장(현장교수): 학습목표 중심 실습 지도·평가
 - 실습생: 실습목표 중심의 실습 수행(목표수행 중심 일지·보고서 작성)



POINT
LESSON

모든 것의 시작은
한우입니다



이종현 농학박사
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사무국장

송아지, 더욱 많이 보다 좋게



한우를 기르는 모든 사람의 바람은 무엇인가?

내가 기르고 있는 암소는 1년에 한 마리씩 빼먹지 않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송아지를 꼬박꼬박 낳아주는 기특한 누렁이이었으면 참 좋겠고, 등록우 경매시장에 가서도 남의 송아지보다 눈에 띄게 좋아서 서로 사려고 달려드는 송아지였으면 더욱 좋겠다.

실제로 송아지 경매장에 나온 송아지를 살펴보는 구매자의 눈썰미는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이곳에서 송아지를 고르는 사람 가운데는 50년 이상 우시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도 있고, 매일 경매시장을 다니면서 1년에 몇 백두에서 몇 천두까지 송아지를 구매해 공급하는 송아지 전문 구매자도 같이 송아지를 탐색한다.

지역축협, 한우조합 등의 경매장에서는 혈통등록, 친자확인, 후대기록, 유전체검사 등 제공할 수 있는 한 모든 정보를 경매 1~2일 전에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경매 당일에는 송아지의 체형, 체중, 건강 여부나 서류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참고하여 경매에 임하게 된다.

소를 사랑하면 돈이 굴러온다

경매장에 송아지를 출하할 때마다 좋은 송아지가 나온다는 말과 함께 합천축협 직원(김태옥 팀장)이 안내한 농장은 합천군 삼가면에 있는 김갑석(59) 대표, 고형심(54)부부가 운영하는 깨끗한 목장이었다.

한우농장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관찰하는 것은 농장 안으로 들어설 때 소의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다.

외부 사람이 농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 소들이 눈만 깜빡거리면서 사람을 본체만체하면서 편히 앉아서 되새김질만 한다면 이 농장은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주인이 밥도 잘 주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며, 외부 사람이 농장 안으로 들어설 때 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마구 움직인다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 농장은 사람이 오면, 가든 신경 쓰지 않고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음에 축사 바닥을 살펴보면, 바닥이 건조하게 잘 관리된 축사에서는 송아지 설사 등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적어 송아지가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는 조건이 되며, 주인의 손길을 많이 받은 송아지는 사람을 잘 따르고 주인에게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제공할 것인데 이 농장은 이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진 농장이었다.

더구나 2022년도 1월, 2월에 경매장에 출하한 송아지가 모두 1등을 하였고 3월에는 2등을 하였다고 하니 송아지도 매우 잘 기르는 농장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김태옥 팀장의 말에 의하면 출하한 송아지의 낙찰가격을 1등 할 경우에는 합천군에서 50만원, 축협에서 10만 원의 사료를 포상으로 지급한다고 하였다.

송아지 설사로 인한 폐사도 없다고 해서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우선은 바닥을 청결하게



<사진 1> 편안하게 휴식을 하는 한우(필자 촬영)



<사진 2> 송아지 목을 굶어주는 장면



<사진 3> 깨끗한 축사에서 송아지와 대화하는 고흥심

관리하며, 송아지 설사백신은 출생 전 6주, 4주에 철저히 한다. 아울러 송아지가 2년 전에 한 마리 잘못되었는데 수의사가 하는 것을 배워 설사가 발생하더라도 탈수가 50% 넘어가기 전에 수액을 놓고 치료를 하면 송아지를 죽이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김갑석 대표는 “경매장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제일 좋은 소는 내가 가지고 있다”면서, “4년 안에 완전한 초우량 암소를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농장은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번식 기간을 단축해서 암소의 생산성을 최대한 발휘 시키는데 일반적인 번식농장에서는

번식 간격이 403일(13.2개월) 전후인데 346일(11.3개월)이다.

김 대표(남편)는 수정 적기 판단을 잘하고 고흥심(아내)은 수태율이 높다.

이렇게 번식을 잘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언제나 소와 함께 지내며 틈나는 대로 소와 이야기하며 가려운 곳도 긁어주면서 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더욱 많이 송아지를 생산하자!

아무리 좋은 암소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소가 좋거나 능력이 월등하게 우량하거나 구분 없이 송아지는 2~3산 만 하고 60개월을 넘기기 전에 비육해서 고기소로 판매하는 일이 최근 암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이다. 이를 단순히 생산자만 잘못한다고 나무랄 수가 없는 것이, 현행 소고기 등급판정 기준상 뼈의 골화 상태에 따라 육질 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하는 기준도 있고 암소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식육점이

나 식당에서 요구도 하니까 생산자는 송아지도 낳고 고기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니 시대의 요구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후대의 능력이 기가 막히게 좋은 암소일 때는 귀중한 유전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며 불행하게도 씨를 받아놓지 못했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거세우의 마블링이 기가 막히게 좋으며 엉덩이까지도 마블링이 잘되어 있는 경우

에도 어미 소를 찾아보면 대부분 도축되어 귀중한 자원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난다.

번식 농가가 「표1」의 자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0년 이상이나 한우 관련 일을 하는 필자도 이 자료를 보고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 글의 제목 ‘보다 많이 더욱 좋게’를 생각했을 정도이다.

우선 「표1」에서 생년월일을 살펴보자.

1산차는 2011년 4월 1일 태어난 후 2산차는

<표1> 10년에 11마리를 생산한 암소

산차	등록번호	개체 식별번호	등록구분	성별	생년월일	씨수소명	최종 심사 점수	도축성적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육질등급	도축일
1	225429423	002067046041	혈통	거세	2011-04-01	KPN707		473	96	16	1++	2013-10-29
2	226131462	002077040409	혈통	암	2012-02-26	KPN661		352	77	20	3	2021-09-01
3	226534387	002304070557	고등	암	2013-02-14	KPN744	80.87					
4	226991794	002088068930	고등	암	2013-12-26	KPN829	84.19					
5	227580971	002309902538	혈통	수	2014-12-07	KPN757						
6	228162589	002104111945	고등	암	2015-10-25	KPN626	82.02					
7	228829352	002112963288	혈통	거세	2016-11-14	KPN944		538	110	10	1+	2019-06-19
8	229420677	002122185972	고등	암	2017-10-20	KPN1009	80.15					
9	230212762	002131398298	고등	암	2018-10-10	KPN1100	81.58					
10	230922056	002141535706	혈통	암	2019-10-21	KPN1202						
11	231683050	002158395149	혈통	수	2020-09-08	KPN1420						
12	232591779	002168205976	혈통	수	2021-09-13	KPN1203						

자료:경남 합천군 김갑석 암소(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자료 인용)

331일, 3산차는 353일, 4산차는 312일 등으로 번식 간격을 12개월(365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보다 짧았으며 특히, 3산에서 4산차 번식 간격이 312일로 1년에 2두를 생산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11년 만에 12마리의 송아지를 생산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2산차부터 12산차까지 11두의 번식 간격 일수의 평균이 346일로 일반농가 평균 번식 간격 일 401.6일에 비하여 55.6일이나 단축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생산할 때마다 4천 원이나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 484천원×11산=5,324천원의 소득이 향상된 것이다.

번식간격 단축에 의한 생산성 향상

- 2020년도 송아지생산비 = 3,512,000원(통계청 자료)
- A 지역의 분만 간격 = 403.5일 (16,909두) 1일:8,703.8원
- B 지역의 분만 간격 = 399.7일 (4,841두)
- 평균분만 간격 = 401.6일 (21,750두)
- 「표1」농가의 분만 간격 = 346.0일

△ 401.6일-346일=55.6일×8,703.8원=483,931원의 소득향상!

보다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자

등록 구분에서도 암소 중에서는 2산 차(12.02.26생)를 제외하면 모든 암소가 고등등록우 이며 체형심사 점수도(80~84점) 상당히 좋은 점수이다.

후대우의 도축성적을 보아도 거세우 2두의 성적 기록을 보면 1산 차에서는 도체중 473kg, 육질 등급 1++(13.10.29)판정과, 7 산 차에서 도체 중 538kg, 등심단면적 110cm², 등지방두께10mm, 육질등급1+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도체중 증가에 의한 생산성 향상

-538 kg-454 kg(거세)= +84 kg×21,720원(5월3일:평가원)=1,824,480원

2021년도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거세우의 평균 도체중은 454kg 이었다.

등록우 경매시장에서 장래 크게 될 송아지를 고르거나, 사양관리를 잘 한다거나, 축사의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능력을 잘 발휘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생체중으로 50kg증체 시키는 일은 대부분의 농가에서 실현이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한다. 김대표 농가와 같은 도체중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처음에는 도체중을 30kg 증가를 목표로 삼고 실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거세우 30 kg 증체×21,720원=651,600원 소득향상!

<표2> 합천축협 혈통등록우 경매집계표

(단위:천원)

구분	암송아지			수송아지			두수
	평균	최고	최고-평균	평균	최고	최고-평균	
1월13일	3,124	5,580	2,456	4,243	6,100	1,857	367
1월27일	2,949	4,530	1,581	3,890	5,360	1,470	347
2월10일	2,883	4,700	1,817	3,659	6,080	2,421	306
2월24일	2,864	4,420	1,556	3,859	5,690	1,831	319
3월24일	3,401	4,880	1,479	4,263	6,180	1,917	289
3월31일	3,236	4,300	1,064	4,459	6,600	2,141	301
4월14일	3,298	5,110	1,812	4,471	5,900	1,429	246
4월28일	3,499	5,630	2,131	4,352	5,610	1,258	279
평균	3,156.8	4,893.8	1,737.0	4,149.5	5,940.0	1,790.5	2,454

자료:합천축협 홈페이지

「표2」의 자료는 2022년 1월~4월(4개월)에 경매장에서 낙찰된 송아지 가격이며 이 가운데 암송아지는 939두(38.3%), 수송아지는 1,515두(61.7%)로 수송아지가 많이 경매되었다.

다른 경매시장에 비해서 송아지 체중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게 경매되는 것은 정확한 출생 일자를 관리하여 구매자들의 신뢰를 높여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경매 월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암·수 송아지의 경락가격은 평균 경매가격보다 최고 가격은 1,700천원 이상 높게 경매되었다.

좋은 송아지를 생산해서 경매장에 출하하면 송아지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1두에 최소

700천원~1,000천원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으니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면 내가 기르거나 외부에 판매해도 남들보다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게 된다.

김용욱 합천축협 조합장은 “100마리를 키우는 한우농가가 150마리를 키우는 농가와 소득을 같게 유지하도록 지도한다면 사료비 절감, 여유 있는 축사환경으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외에도 좋은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도 그 지역 한우농가에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다.

김재경 원장의 **한우 키포인트** **이것만은 꼭!**

많은 농가가 한우를 사육하다 보면 헛갈리거나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면서 소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오랜 기간 수의사 생활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노하우들과 현재 “소앤소 김재경원장”이라는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한우 농가들이 쉽게 질병이나 사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재를 해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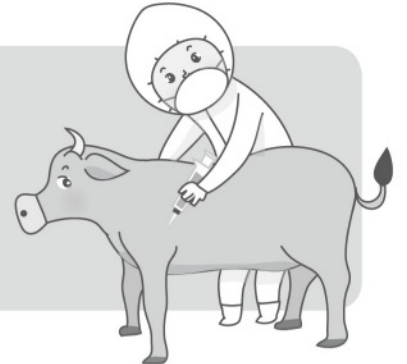


Q 4월 29일 분만 후 2달 동안 후산을 달고 다니다가 떨어져 나가고 아직 남아 있는 태를 꼬리처럼 달고 다닙니다. 원장님 유튜브를 보면 8일 정도만 되어도 녹아서 떨어져 나온다고 그냥 두라고 하셨는데, 초보자로서는 계속 걱정이 됩니다. 아직 사료와 볏짚은 잘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대개 분만 후 12시간 이내에 태반이 배출되어야 하는데, 12시간이 지나도록 배출되지 않는 것을 후산 정체라고 합니다.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자궁수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영양부족(비타민A, 비타민E, 옥도, 셀레늄) 특히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 칼슘과 인 비율의 불균형, 농후사료의 과다급여, 과비육, 운동 부족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후산은 큰 문제 없이 배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궁염증으로 인해 체온이 상승하여 사료를 덜 먹게 되고 다음에는 번식 장애(미발정, 수태율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궁수축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주사하여 후산이 빨리 배출되도록 하고, 자궁염이 있는 경우에는 세프티오퍼 제재를 주사하고 여건이 된다면 자궁세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Q 원장님 매년 주기적으로 로타코로나 백신을 주사하고 있지만 번번이 바이러스성 설사가 발생하고 있어서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바이러스성 설사도 치료할 수 있는가요?



A 안타깝지만, 바이러스는 치료방법이 없고 예방을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로타·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면,

로타바이러스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소에 감염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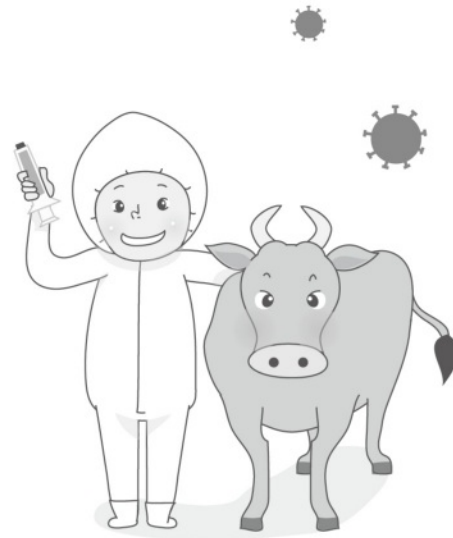
그렇지만 큰 소에서는 감염되어도 발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상 없이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어미 소가 감염된 경우 바이러스는 농장에 상존하여 순환 감염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면역력이 약한 1~2주령의 송아지에게서 문제시되며 30일령 송아지까지 폐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염된 송아지는 정상체온이지만 심하게 의기소침해 있으며, 침을 흘리고 물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를 3~7일 정도 합니다. 설사 때문에 탈수, 식욕감소 등이 뒤따라 일어나며, 세균성 2차 감염이 이어지면 폐사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로타바이러스의 폐사율은 0~50%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도
로타바이러스와 같이
바이러스성이기는
하지만,
육성우와 같은 보다
큰 소에서도 설사를
일으키며, 설사의 양상도
심한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설사는
달걀의 흰자와 비슷한 투명한 점액성 설
사가 특징인데, 이는 장벽에 존재하는 점
액의 탈락 때문입니다. 로타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의 설사를 임상 증상으
로 구분하는 것은 거의 어렵고, 폐사는 2
차 감염의 유무와 탈수 때문에 결정됩니
다.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약은 없으므
로, 분만 전 어미 소에 예방접종을 실시
하여 충분한 항체가 들어있는 초유를 송
아지에게 급여하여 면역력을 길러주는
예방책이 유일한 대책이며, 일단 발병하
면 2차 감염을 막고 손실된 체액을 보충
해 주는 대증요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송아지 설사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어미 소의 관심과
돌봄 상태가 부족하여 어미 소에게 초유
를 적정량을 섭취하지 못하고, 그 영향
으로 병균을 이겨낼 수 있는 송아지 면
역력이 부족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악영향으로 소
화기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만성 설사증
세를 보이게 되고 원충성 질병 발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지사제 및 설사 관련 주사제
를 투약해도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
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설사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출생 후 지속해서 유산균, 생균제, 효모제 등이 함유된 종합 미생물제제를 송아지에게 경구 투
여하면 설사 예방뿐만 아니라 송아지가 설사를 하더라도 성장 저하 없이 퍼지지 않고 푹푹하게 잘
크게 됩니다.

둘째, 분만 전 어미 소에게 설사 예방백신을 해야 합니다. 사장님께서 설사 예방백신을 2회 하였다
고 했지만, 간혹 농장이나 백신 판매처에서 백신을 적정 온도에서 보관하지 못한 경우 그 백신의 효
과는 사라진다고 봐야 합니다. 백신의 종류를 바꿔 보는 것도 방법이고 보관법이 적절했는지 판단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스스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높여줘야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양의 초유를 송아지에게 급여해야 하는데, 초유를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인 48시간 이내
에 최소 6L의 초유를 먹여 주어야 합니다. 양질의 초유 1L에는 20g 이상의 면역항체가 함유되어 있
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분말 초유를 구매하여 보충급여 해주어야 합니다.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처하려면



글. 한우연구소 장선식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새해에는 혹시 상황이 나아질까 기대하면서 5월을 보냈지만 한우사육 상황은 국내·국제적으로 살펴봐도 나아지기 어려워 보인다. 갑작스런 세계적 격변으로 인해 사료곡물 가격은 물론 곡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료의 주된 원료가 되는 옥수수 가격은 두 배 이상 오른 상태다.

더욱이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산불, 가뭄, 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이 반복되면서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주요국가의 작황마저 악화되고 있다. 작년까지 안정세를 보여 왔던 사료가격도 30% 이상 올랐고 매달 사료가격이 오른다고 사료회사는 농가에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작년까지 호황을 누리던 한우 경락가격은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더욱 내려갈 전망이다. 이래저래 안팎으로 내우

외환이 겹치고 있다. 다만 송아지 가격은

조금 하락하고 있으나 이 역시 어디로

틸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아 안심

할 수 없다. 거세우 한 마리를 키

우기 위해 대략 농후사료 5톤

조사료 2톤이 소요된다. 사료

비용은 통상 350만 원 내외

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제 이

런 사료비용은 400~450만

원 선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이지 걱정이 크다.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 호랑이 등도 탈

수 있고 무너진 하늘에서 솟아날

구멍도 보인다.



지금까지 소 값이 좋고 사료 값이 오르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이제 전처럼 좋은 시절은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한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위기의 시기를 잘 넘겨야한다.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사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는 사료자원의 90%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더욱 필요한 덕목이다.

한우 사육농가의 많은 노력으로 도체중이 많이 늘어났고, 육량C등급도 17년 34.8%에서 21년 22.1%로 하락했으며, 등지방두께도 동기간 14.5mm에서 13.8mm로 얇아졌다. 그러나 도체 한 마리당 불가식지방은 육량 A등급이 평균 72kg, B등급 83kg, C등급 81kg 정도 나온다. 불가식지방 80kg에 경락단가 22,000원만 잡아도 마리당 210여만 원의 돈이 사라진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육량 A등급을 더 많이 생산해야 농가의 사료 비용도 아끼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

거세한우 고급육을 생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존의 고급육 프로그램처럼 29개월령 750kg을 목표로 사료를 일반적으로 먹이는 방법과 둘째로 사료를 많이 먹이면서 최소 850~900kg이상까지 키워 출하하는 방법이다. 사료 값이 전년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육질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후자의 생산방식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사료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사육한다면 사료비용이 100~150만원이 추가로 소요



되므로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체중을 많이 늘리려면 비육중기부터 많은 양의 사료를 급여해야 하는데 이때 등지방이나 근간지방의 양도 같이 늘어나므로 불가식지방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도체성적을 분석해보면 등지방두께가 두꺼울수록 근내지방이 적게 들어가고, 등지방이 얇을수록 섬세한 지방이 많이 들어가고 근내지방도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방금 말한 첫 번째 방식으로 우리나라 평균으로 키우되 등지방을 얇게 하여 출하체중 750kg, 근내지방도 9의 육질1++등급을 만들어 출하한다면 사료급여량도 줄이면서 두 번째 방식보다 더 많은 경락가격을 받을 수 있다.

농가를 방문해 보면 사료를 많이 먹여 소의 등선이 매끈하지 않고 울룩불룩 고르지 않은 경우를 자주 본다. 이런 소는 대부분 등지방두께가 두꺼워 육량 C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한우를 키우는 농민이라면

세계 제일 육질의 소를 출하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번 위기를 명품 한우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컨설팅을 통한 경산우의 계획적 도태

글. 지엠디컨설팅

최근의 컨설팅 과정에서 경산우 암소 비육 방법과 도태순위를 결정하여 주었으면 하는 요청을 많이 받는다. 긴 호황과 사상최고의 사육두수에 따른 반응일 것이다. 최근 지속된 사료비 상승 또한 부담이 가는 요소일 것이다. 경산우의 비육 출하는 번식전문 농장에 있어 매출액의 50%를 담당하며 현금흐름의 젖 줄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컨설팅 중 암소 도태등급 분석을 하다보면 낮은 출하월령에도 불구하고 도체중과 등급이 미흡한 농장이 많다는 것이다. 산차가 높거나 체형이 작은 경우일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출하월령이 60개월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도체중이 미흡한 경우는 대체로 비계획적인 비육이 대부분이며 이로 인한 짧은 비육기간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암소비육 프로그램을 알아보기에 앞서 해야할 문제가 농장별 도태기준의 설정일 것이다. 농장의 도태기준과 선정 기준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가지 방법을 제시 하자면 조금은 객관적인 숫자와 농장주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다섯가지 요소를 각각 점수화 하여 순위별로 계획도태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고려요소는 암소의 체형이다. 암소의 선형심사 점수를 활용하여 점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형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아래의 외모심사 기준을 적

용하여 자체 심사 후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송아지의 외형일 것이다. 송아지의 경우 성우와는 다른 해부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외형을 평가 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번식 성적이다. 1년1산을 하고 있는지? 분만은 수월 한지, 모성과 포유능력은 우수 한지 등이다. 이는 외부적인 숫자 보다는 농장내부의 자체적인 정보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네 번째는 유전능력일 것이다. 유전능력에서 첫 번째 고려사항은 후대 성적일 것이고, 산차가 작아 후대성적이 없을 경우는 EPD를 활용하여 점수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계대 수가 낮을 경우는 가중치를 낮게 하여 수치화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암소의 공격성과 같은 성질일 것이다. 이 부분 또한 농장 자체의 정보가 아니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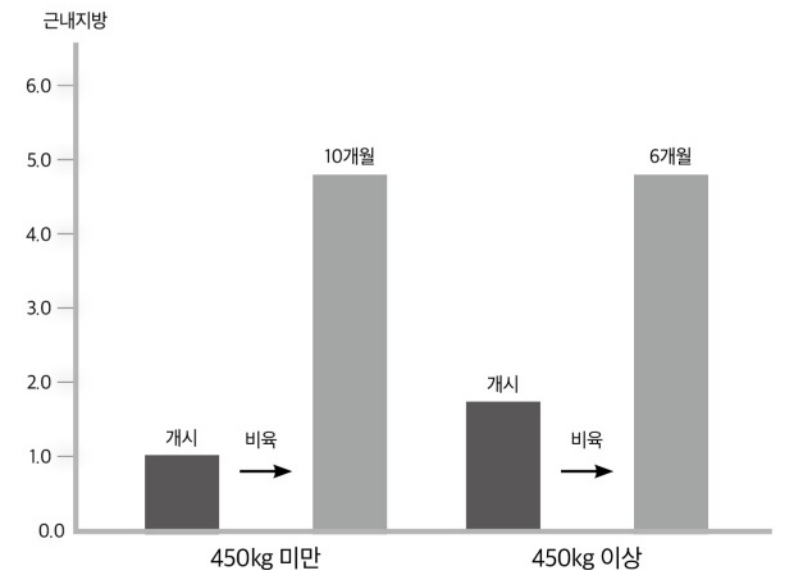
한우외모심사기준

(한국종축개량협회 공고 2013-5호 2013.2.5)

심사부위	설명	배점
1. 일반외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육이 양호하며, 체구는 넓고, 깊고, 늘씬하여 체적이 풍부한 것. 머리·목·체구·사지간의 균형과 전·중·후구의 균형이 좋으며 체상선과 체하선은 서로 수평으로 육용체형을 구비한 것. 영양은 중 정도로 살 붙임이 균일하여 각 부위의 이행이 좋은 것. 머리는 체구에 비해 알맞게 크고, 모양이 좋고 선명한 것. 이마는 평평하고 넓으며 눈은 정기가 있고 온화한 것. 뺨은 풍만하고 턱은 넓고 튼튼하며 콧날은 길이가 적당하고 입은 큰 것. 뺨은 색과 윤택이 좋고 모양이 좋은 것. 귀는 크기가 중정도이고 목덜미가 넓은 것. 목은 짧은 듯하고 머리에서 전구로의 이행이 좋은 것. 	25
2. 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질이 좋고 윤곽이 선명하여 품위가 있으며, 암·수의 성상이 뚜렷하며 성질이 온순한 것. 피모는 황갈색으로 윤택이 있고, 가늘고, 부드러우며 밀생 하여 있는 것. 피부는 여유가 있고 두께는 중정도로 유연하며 탄력이 풍부한 것. 	10
3. 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이 넓고, 깊고, 충실한 것. 가슴은 넓고 깊으며 가슴바닥은 평평하고 앞가슴과 겨드랑이가 충실한 것. 어깨와 기갑은 두텁고, 붙임이 좋으며, 경사가 알맞고 어깨 끝이 돌출하지 않으며 어깨뒤가 충실한 것. 	10
4. 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이 넓고, 깊고, 늘씬한 것 등·허리는 넓고, 길며, 튼튼하고, 곧으며 후구로의 이행이 충실한 것. 갈비는 넓고 길게 잘 벌어져 있으며 갈비사이에는 넓고 부착이 좋으며 표면이 평활한 것. 배는 풍만하되 처지지 않으며 하검부가 충실한 것. 	18
5. 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각(腰角), 곤(臏), 좌골(坐骨)은 폭이 넓고, 길고, 경사지지 않아 모양이 좋고 충실한 것. 요각은 돌출하지 않고 십자부는 평평하고 천골은 높지 않은 것. 꼬리는 부착이 좋으며 곧게 늘어져 있고 미방이 알맞게 발달한 것. 위·아래 넓적다리는 넓고, 두텁고, 충실한 것. 유방은 고르게 잘 발달하고 유연하며, 탄력성이 있고 유두는 배열이 좋고, 크고, 부드럽고, 유정맥은 굵고 긴 것. 성기는 정상적으로 발달한 것 	27
6. 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리의 길이는 몸 깊이에 알맞고 지세가 바르며, 근(筋), 힘줄(腱)과 관절이 발달한 것. 발굽은 크고 질이 좋은 것. 걸음걸이는 확실하고 발디딤이 안정된 것. 	10
점수		100

이와 같이 점수화 하여 낮은 순서부터 비육여부를 결정한 다면 우방의 여유와 충분한 비육기간 및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순위 결정은 1년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향후 분만우를 대상으로 도태가 결정되면 임신기간 중 비육(BCS관리)을 효과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임신 기간 중 비육의 경우 분만으로 인하여 효율이 매우 떨어진다. 다만 급작스러운 섭취량의 증가는 내장 지방의 침착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임신기간 중 조금씩 섭취량을 증가 시키는 것은 비육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최근의 사료비 상승을 고려 할 때 고가의 비육 사료 보다는 번식우 사료를 활용하여 임신기간 중 섭취량을 늘이는 것을 권장 한다. 경산우 비육시 비육기간을 단축하기위한 방법은 첫 번째 번식기간 중 BCS 3.5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지나친 포유를 통한 BCS의 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BCS관리를 위해서는 번식기간 중 산차 별 돌아먹이기와 늘려먹이기와 같은 분만전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분만이후에는 가능하다면 조기이유를 실시 하는 것이 가장 유리 할 것이다. 암소의 BCS에 따라 임신기간 중 급여량이 결정된다면 암소의 월령은 비육기간을 결정하는 요소일 것이다. 통상적으로 60개월 초과인 경우 등급하향으로 인하여 단기 비육하여 체중 회복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육기간 별 근내 지방도 변화



마지막으로 60개월 미만 비육시작 시 비육상태에 따라 비육기간이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산우 임신 비육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하다. 정리 하자면 농장의 선발 도태 기준에 따른 비육 결정, BCS에 따른 임신 중 급여량 결정, 암소의 연령에 따른 결정, 마지막으로 비육시작 상황에 따른 비육 기간의 결정 등이다.

계획적이고 충분한 비육기간을 통하여 농장의 수익성이 향상 되기를 기대한다.

한우 유통투명화 활동으로 한우의 가치 더욱 발전 시켜 나가야



글. 본회 유통사업국
유재민 주임

한우유통 투명화 정보제공 사업은 우리 협회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우자조금 사업 중 하나다.

2022년 현재 한우유통 투명화 정보제공 사업을 위한 유통감시단은 전국적으로 유통감시원 9명, 부감시원 17명, 농가감시원 7명, 원산지단속 전문가 3명 총 36명으로 구성돼 있다.

감시원들은 모두 농관원 또는 지자체에서 발행한 명예 감시원증을 소지하며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한우유통 투명화를 실현이다.

쇠고기 유통업소 및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위반, 거짓 표시 등의 감시 활동 및 계도 활동, 축산물 이력제 등을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한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한우유통 투명화 정보제공 사업은 연중으로 실시되는 감시활동으로서, 1년에 총 12회 감시활동이 진행된다.

설날·추석 등 성수기에는 농관원 감시원과 합동하여 집중 감시활동을 벌이는 등 명절 특수를 노리고 성행하는 원산지 위반 여부를 적발하고 있다.

작년(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오프라인 활동이 많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육점, 유통업소 등 15,762개소를 방문점검하여 원산지 미표시 650건, 개체번호 미(허위)표시 351건, 축종 미(허위)표시 515건을 적발 및 시정조치 하였다.

작년 달(2월, 4월, 6월, 8월, 10월)에는 ‘미스터리 쇼퍼’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미스터리 쇼퍼 사업은 서울시청 식품안전과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감시 활동이다.

이 사업 또한 한우유통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수입육이나 국내산 육을 한우로 둔갑 판매하거나, 낮은 등급 쇠고기를 육질등급이 우수한 다른 개체의 이력번호로 허위표시하는 행위들을 가려낸다.

고객으로 위장한 감시원이 매장에서 한우를 구입하고, 구입한 쇠고기를 한우유전자 감식센터로 보내어 진짜 한우인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유전자 검사에서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받은 업소에는 조사권을 가진 축산물 검사관(수의사), 공무원과 감시원들이 재방문해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등을 다시 확인하는 등 민·관 합동조사의 과정을 거쳐 적발이 이뤄진다. 작년(2021)의 경우 699곳을 점검하여 한우둔갑 판매업소 13개소를 적발하였다.

2008년부터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둔갑판매 등으로 한우농가들의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생활’과 관련된 요소들은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매우 높아져, 축산물 및 식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민감한 사회문제로 쉽게 전환되기도 하고 사회불안의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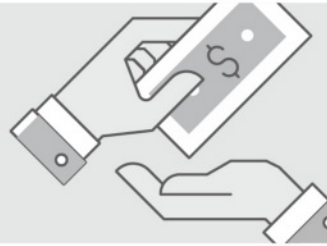
한우 유통투명화는 한우농가가 안심하고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실현해야 할 숙명적 과제다.

한우는 ‘신선식품’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기성품들에 비해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현될 확률이 높다. 최고 수준의 안전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최소한의 규제를 요구하는 업체들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협회는 한우가 한우로
판매되는 투명한
유통시장의 확립으로
한우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한우농가의
정직한 땀의 가치를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
갈 것이다.

해외 축산(육용우) 자조금 제도와 시사점

1 해외사례로 보는 자조금(Check-Off) 제도 개요



목적, 재원, 실시주체

- 농축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 해당품목 전체(※1)의 판매촉진, 수출촉진,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1) 국산, 수입 구분 없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WTO협정상 의문의 여지 있음
- 기본적인 구조는, 법률에 근거해, 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 품목별로, 거래시 및 수입통관시, 모든 생산자의 매출액 및 모든 수입업자의 수입액으로부터 거출금을 강제적으로 징수(※2)
- (※2)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이 있음
- 자조금 및 거출금을 원 재원으로 하여, 그 품목 관련 사업을 생산자가 주체가 되어 실시

의사결정 방법

- 자조금 제도의 실시, 거출금 금액, 자금관리 단체 운영위원 선출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생산자 등의 투표로 과반수 찬성이 필요

정부의 역할

- 정부의 주요 역할은, 품목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사업평가, 거출금 강제징수 실시 등
- 미국에서는 정부경비도 자조금 자금에서 지출되고 있음

각국의 여건에 따른 자조금 제도의 다양성

- 이처럼 농축산물 대상 자조금 제도는, 1935년 미국 플로리다 주 정부에서 오렌지에 도입한 것이 최초, 이후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1954년 양모에 도입한 것이 처음
- 미국 이외 국가로는, 캐나다, 호주, 영국, 한국 등에서 유사한 자조금 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음
- 한편,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지만, 각국, 각 품목에 따라, 의사결정방법, 거출방법, 자금용도, 정부 관여 등에서 차이가 있음

2 해외 자조금(Check-Off)제도 특징

※ 아래 참고문헌 내용 중 핵심사항을 정리하였음
<참고문헌> '해외에서 생산자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판매촉진활동(자조금제도 등) 파악을 위한 조사결과'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 2016.12.

'임의 거출'과 무임승차자 문제, '강제 징수'와 정부감독

-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조금 제도는, 모두 업계의 자주적인 사업인 연구개발이나 소비자에 대한 이해양성, 소비 촉진 등을 실시하기 위해 '임의 거출'로 시작된 품목이 많음
- '임의 거출'하에서는 자조금 납부 없이 이익만을 향수하는 '무임승차자'문제가 발생
- '무임승차자'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가 생산자의 합의를 형성하고 강제징수 구조를 연방정부나 의회에 요청하게 됨

생산자에 의한 합의 형성을 전제로 제도화 추진

-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조금 제도는, 모정부(행정)는 기본적으로 자조금 사업은 생산자의 자주적 사업추진이라는 인식이며, 생산자의 합의 형성 및 그 내용을 전제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 자조금 징수구조 등은 다소 상이하지만, 미국이나 호주에서 자조금 제도는 어디까지나 생산자의 자주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구체적인 사업, 징수자의 범위, 의사결정을 위한 생산자별 투표 배분 등은 생산자 스스로 결정

자조금 징수·관리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자조금 자금의 징수·관리 업무는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미국에서는 법률에 의거 인가된 제3자 조직이, 호주에서는 연방정부가 직접, 캐나다에서는 법률에 의거 설립된 공적기관(에이전시)이 담당하고 있음
-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조금을 납부하는 자는 생산자로부터 대상 품목의 구입자(업자)이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벌칙은 구입자에 부과

- 자조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정부(행정)는 가축시장 등 거래현장 감독을 중시

수입업자로부터 자조금 징수 여부

- 호주나 한국에서는 수입업자(수입품)로부터 자조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 미국 육용우 자조금 제도는, 도입초기에는 생산자로부터만 자조금을 징수하였으나, 이후 수입업자로부터도 징수하도록 제도를 개정
 - 캐나다에서도 육용우 대상 자조금 제도 개시 후, 모든 주에서 시행하는 단계에서 수입업자로부터도 자조금 징수를 시작하고 있음

자조금 용도는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생산자의향 반영

- 자조금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금관리단체 등이 생산자 의향을 바탕으로 결정
- 자조금 관리는, 미국은 자조금관리단체 '보드', 호주는 자조금제도 신청을 한 생산자단체, 캐나다의 에이전시(대행사) 보드

자조금 제도에 대한 정부의 역할로서 관리·감독 및 지원

- 미국에서는 법에 근거한 관리·감독이 주 업무이며, 미국농무부(USDA)는 자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시
 - 담당관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획, 입안, 승인 등 각 단계에서 사업이 규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
 - 이미 실시되고 있는 소비확대 내용, 표현 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감시하고 있음
- 호주에서는 관리·감독 외에, 자조금의 징수 및 관리 업무와 연구개발공사가 자조금을 재원으로 실시하는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보조를 실시하고 있음
 - 호주의 자조금 제도는 연구개발을 최우선 목적으로 도입된 경위가 있으며, 그 인센티브로서 연방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연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농가 거출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 캐나다에서는 법에 따라 설립된 농축산물협의회가, 공급관리품목(우유, 닭고기)을 관리하는 단체와 연방자조금 에이전시(대행기관)를 관리 감독
 - 정부는 협의회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자조금 에이전시 설립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
- 미국 및 호주에서는 자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연방정부의 경비(인건비나 고정경비 등)는 그 비율에 따라 각 품목의 자조금 자금으로 충당
 - 캐나다는 관리·감독과 관련된 경비는 정부가 부담

국가별 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의 입장 차이

- 미국 생산자는, 개별농가에 대한 정부(행정)의 관여를 싫어하는 경향이 강함, 생산자 및 업계가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조금 제도를 지향
- 캐나다의 육용우생산자도, 미국과 같이, 정부 관여에 거부감이 있지만, 정부와의 협조수단으로 자조금 제도를 활용
 - 생산자가 자조금을 거출하여 실시하는 각 사업 중에서, 정부방침에 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정부가 개별사업비의 50~75%를 보조
- 호주에서는 연방정부는 기본적으로 인프라나 재해대책 등 한정된 시책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책의 다양성을 보완하는 방편으로 자조금 제도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음

자조금 제도의 대상품목은 국가별로 다양하며,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잔디, 크리스마스 트리, 파콘용 옥수수 등 그 대상 및 범위는 확대되고 있음

- ※ 한국에서는 자조금 제도가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농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 정부는 자조금 유인 수단으로서 일정 비율의 보조를 지원
 - 자조금 제도가 효과적인 농정수단으로 인식되어, 자조금 실시 품목이 확대되고 있음

3 미국, 호주, 캐나다의 자조금 제도 비교



■ 미국의 자조금 제도

- 연방정부에서는, 1954년 양모에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품목별 개별법으로 12개 품목,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법으로 10개 품목 등, 전체 22개 품목에 대해 실시
- 이 밖에, 주(州)법에 의거, 주 정부 단위로 수행하고 있는 농산물도 있으며, 대표적인 것은 노스다코다 주(State of North Dakota)의 소맥 자조금제도(NORTH DAKOTA WHEAT CHECK OFF)
 - 생산자 거출금은, 판매 시, 1부셀 당 1.5센트 부과 (한화 19원) ※ 적용환율 1\$ = 1,269.2원

- 거출금은, 판매촉진, 조사연구 등에 사용되지
만, 정부대상 로비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음
- 또한 주(州) 단계에서도 배분되어, 주(州) 내의 프
로그램에 활용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도(道)
단위 사업)
- 사업비, 징수경비, 관리비 등 모든 경비는
자조금 자금으로 충당

【육용우 자조금 사례】

- 예산규모(2015년) :
4천만 달러(약 508억원)
- 근거법령 : 우육판매촉진·조사연구법(Beef
Promotion and Research Act of 1985)
- 도입배경
 - 닭고기 등과의 경쟁으로, 쇠고기 소비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과 함께,
 - 70년대 쇠고기 가격 동결조치로 육우산업이 타격
을 입은 것에 대한 타개책으로서
 - 업계가 국가차원의 자조금 제도를 요망
- 사업내용
 - 쇠고기 전체 판매촉진, 조사연구, 소비자·생산자에
대한 정보제공, 육우산업의 이미지 제고, 수출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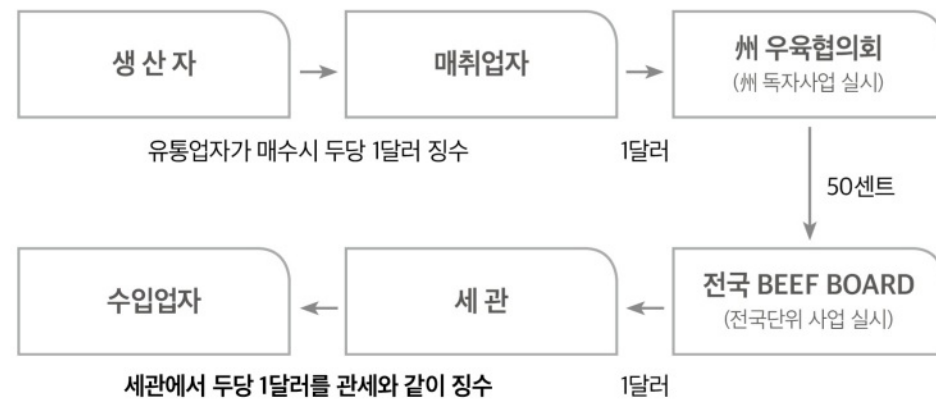
■ 호주의 자조금 제도

- 우육, 돈육, 소맥, 사과, 양파 등 70개 품목
이상에서 실시
- 농업·수자원부의 자조금담당국에 자금을
일단 모은 후, 각각의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
에 교부하는 구조
- 마케팅, 연구개발 외에, 쇠고기에서는 잔류
물 검사 및 동물위생에도 사용
- 수입업자로부터의 거출금 징수는 없음

【육용우 자조금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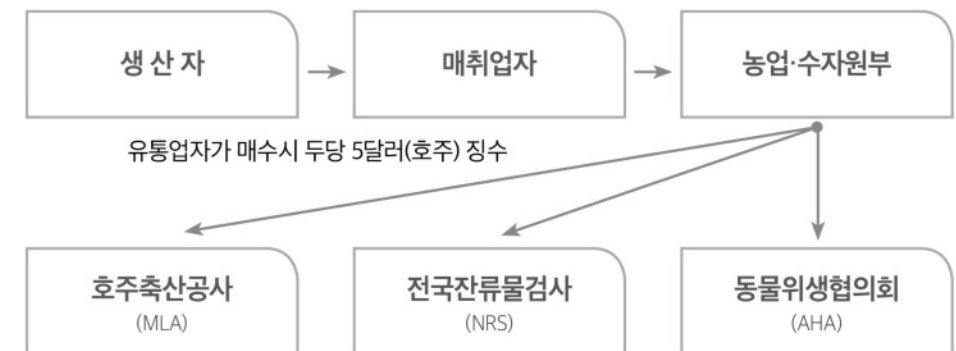
- 호주축산공사(MLA) 예산액(14~15년) :
1.8억 호주달러(약 1,600억원)
- 근거 법령 : 일차산업품목거출금법(Primary
Industries Levy and Charges Act of 1991)
- 도입배경
 - 1980년대부터 정부관여를 축소하고, 업계 주도로
산업육성을 도모한다는 정책방침 아래, 재정지원
삭감 대안으로 도입
- 사업내용
 - 호주축산공사(MLA : Meat & Livestock Australia)
연구개발, 마케팅
 - 전국잔류물검사(NRS : National Residue Survey)
잔류물검사
 - 동물위생협의회(AHA : Animal Health Alliance) 동
물위생

사업구조



※ 1달러 = 1,269.2원

사업구조



※ 수입쇠고기로부터는 거출금을 징수하지 않음

※ 1달러(호주) = 893.4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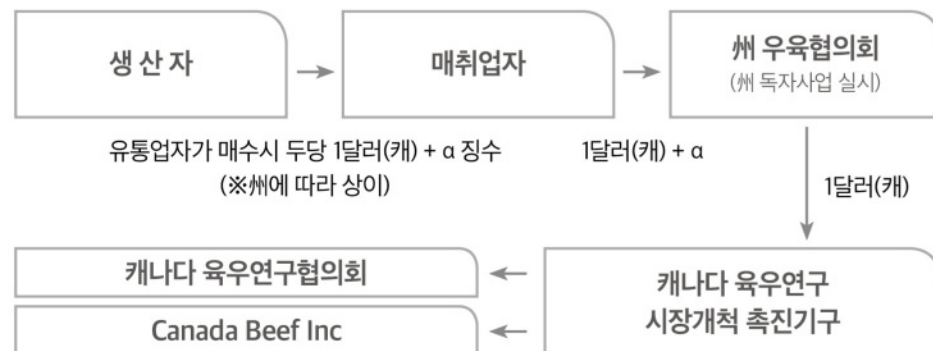
■ 캐나다의 자조금 제도

- 연방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것은 우육 1개 품목이며, 향후 돈육 등 대상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육용우 자조금 사례】

- 연방차원 예산(14~15년) : 500만 캐나다 달러(49억 6천만 원)
- 근거법령 : 농산물기구법(Farm Products Agencies Act of 1993)
- 도입배경
 - 법률은 1993년에 성립하였으나, 최초의 자조금 제도인 쇠고기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국내생산자로부터 거출금 징수 시작
 - 이후, 2013년 6월부터는 미국의 사업방식과 동일하게 간다는 의도로, 수입업체로부터도 거출금을 징수
- 사업내용
 - 캐나다육우연구협의회(The Beef Cattle Research Council) : 캐나다 우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 실시
 - 캐나다 우육공사(Canada Beef Inc.) : 국내외 마케팅 활동

사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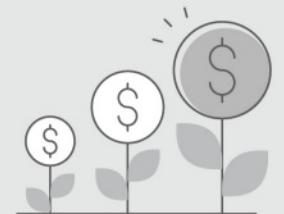


※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업자로부터 1두당 1달러(캐) 거출금을 징수

※ 1달러(캐나다) = 992원

4

쇠고기 수출국의 자조금을 활용한 수출확대



4-1. 미국산 쇠고기의 BSE(광우병) 타개 및 수출촉진 사례

개요

- 2009년 당시,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BSE로 인한 수입정지에서 풀렸지만, 소비증가 어려움 직면
-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2009년 12월부터,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가 주체가 되어, 자조금 제도를 활용
- 미국산 쇠고기 신뢰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트러스트·캠페인), 상당한 효과를 거둠

트러스트·캠페인 전개

- 목적
 - 미국 육류수출협회가 주체가 되어, 2009년 12월부터 한국에서 실시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회복 캠페인
- 주요 추진내용

제1탄 : 2009년 12월 ~ “엄마의 마음”편

- 미국 축산업계에 종사하는 3명의 미국인 여성(축산농가, 식품안전 연구원, 식육검사원)을 기용
- ‘여성이 여성에게’를 테마로, 어린이를 키우는 엄마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한국의 여성에게 PR하는 내용을 CM으로 제작
- 유선방송 외에 여성을 목표로하는 잡지광고, 지하철 및 버스광고를 게재

제2탄 : 2010년 12월 ~ “100%의 진심”편

- ‘자연방목으로 깨끗한 미국산 쇠고기’, ‘국물사료로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 등의 캐치카피로, 엄마의 시선에서 가족에게 안심줄 수 있는 쇠고기로 PR하는 내용의 CM을 제작

제3탄 : 2012년 12월 ~ “월드 클래스 쇠고기”편

- “발상을 바꾸면”편
“일어나라”편
- “세계 110개국 이상에서 사랑받고 있는 월드 클래스의 미국산 쇠고기”라고 하는 캐치로 PR하는 CM을 방영

○ 사업효과

- 미국산 쇠고기 구입여부 설문조사 실시,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했다'는 응답비율 증가
(09. 1~8) 3% → (09. 12.) 19.8% → (10. 1.) 20.6%
-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량과 시장점유율 회복
 - 수출량 : 14.5천 톤(10년 2월, 전년동기비 2배 이상)
 - 미국산 쇠고기수출 비중 : 25% → 33%(캠페인 개시 2개월 후)

4-2. 호주산 쇠고기의 수출촉진 사례

신 브랜드 프로모션 'True Aussie Beef'

- 2014년부터 새로운 국제브랜드로 'True Aussie Beef'를 세계에 전개
 - 웹프 대상 호주 쇠고기를 이용한 레시피 사이트에 스폰서 역할 등
- 공동 마케팅(CoMarketing) 프로그램
 - 쇠고기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서, 호주기업을 지원
 - 2014~15년에는, 우육업자 50사와 협업함과 동시에, 618개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활동을 25개국에서 지원

구체적인 활동 사례

- 점포 내에서 샘플을 나눠주고, 호주 쇠고기의 판촉 및 판매
- 호텔 웨프와 함께 세미나 개최
 - 브랜드 및 그 특성, 요리에 어울리는 커팅 방법 등
- 서플라이 체인 조사 시찰단의 스폰서
- 대중매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
 - 오지 비프로 '렛츠 해피 캠페인' 등 실시

사업효과

- 호주산 쇠고기 수출량이 최근 10년간 약 40% 증가
 - (05년) 129만톤 → (15년) 129만톤

5

해외 자조금 제도의 공통점 및 시사점



개별법 또는 일반법 제정 후, 품목별로 규칙 등을 정해서 실시하며, 대상품목 전 생산자가 거출금 징수 대상

- 적절한 거출금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납시에는 벌칙이 있음

일정 수 이상의 생산자 동의로, 공정하면서도 적절히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단체를 설립

- 제도 개시 및 사업추진에 있어서, 전체 생산자의 일정 수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는 체계를 도입

거출금의 용도는, 판매촉진, 조사연구 등에 한정한다는 취지를 법률에 명기

해외 자조금 사례를 참고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해외 자조금 시행 국가는, 농업강국으로 국제시장에서 수출국의 입장이며, 그 역사도 오래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우리나라 자조금 제도는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농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형태로 도입, 효과적인 농정수단이라는 인식이 있음

<참고>

한국의 자조금제도 개요

□ 도입배경

- 우루과이 라운드의 농산물협상이 시작되면서,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의 생존전략 일환으로 92년부터 자조금 제도 발족
- 돼지고기, 닭고기를 필두로 현재는 34개 품목(원예 25, 축산 9) 시행
- 강제징수에 의한 자조금은, 한우, 한돈, 낙농, 육계, 계란의 5개 품목, 나머지는 임의 거출
- 정부는 일정 부분 재정 지원

□ 한우자조금 사례

- 근거법률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 거출대상 : 생산자 전체
- 의사결정 과정
 -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승인 이후
 - 축산단체가 선거로 선출한 대의원의 2/3 이상 투표, 투표자 2/3 찬성이 필요
- 제도개편
 - 생산자의 1/10(또는 축산물의 1/4이상 생산자)의 서명으로, 대의원회에서 투표
 - 생산자 과반수 요청으로 자동 폐지
- 거출금 : 소 두당 2만원
 - 거출금 미납시 1000만원 이하 벌금
- 자금관리 및 사업실시 단체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대의원, 정부담당공무원, 한우협회, 농협 등으로 구성

2022

5월 한우동향분석

글.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한우사육) 2022년 4월 한우 사육두수 두수 전월·전년 동월 대비 증가, 가임암소 두수 전월 대비 감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암소 자율감축 필요

- 가임암소는 전월 대비 0.1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57% 증가
- 연령별 사육두수 전월 대비 1세 미만 2.57% 감소, 1세~2세 0.41% 증가, 2세 이상 4.69% 증가, 전년 동월 대비 전 연령 모두 증가

(등급판정) 3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5.1%로 전월 대비 감소,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1++등급 : 25.2%, 1+등급 : 25.4%, 1등급 : 24.4%

(도매 및 산지가격) 3월 한우 도매가격 전월 대비 상승,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수송아지 제외 큰 소 및 송아지 전월·전년 동월 대비 하락

- 한우 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1.1% 상승, 전년 동월 대비 3.9% 하락

(배합사료·정액판매) 배합사료 및 정액 판매량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 3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
- 3월 정액판매량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

(쇠고기 수입) 3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16.2% 증가

- 전체 쇠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16.2% 증가, 냉장육 수입량 21.7% 증가, 냉동육 수입량 14.6% 증가

(수급전망) 2022년 한우 사육두수 전년대비 5.0%, 평년 대비 15.1% 증가 전망, 도축두수 전년대비 7.6%, 평년 대비 12.9% 증가 전망

(가격전망) 2022년 한우 전체 평균 도매가격 전년 대비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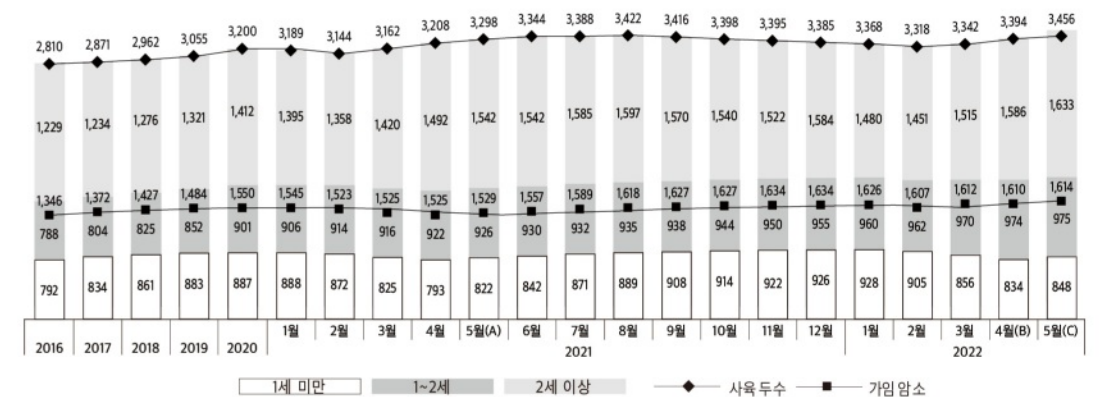
1. 한우 사육동향

☑ 2022년 5월 한우 사육두수 및 가임암소 두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 한우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암소 자율감축 필요 시기

- 한우 사육두수는 345만 6천 두로 전년 동월(329만 8천 두) 대비 4.79%(15만 8천 두) 증가, 전월(339만 4천 두) 대비 1.83%(6만 2천 두) 증가
- 가임암소는 161만 4천 두로 전년 동월(152만 9천 두) 대비 5.56%(8만 5천 두) 증가, 전월(161만 4천 두) 대비 0.25%(4천 두) 증가
- 연령별 사육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은 3.16%(2만 6천 두), 1~2세는 5.29%(4만 9천 두), 2세 이상은 5.90%(9만 1천 두) 증가

<그림 1> 가임암소 연령별 두수 현황

(단위 : 천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가격제 '소이력관리현황'

- 사육 농장수는 89,242농장으로 전년 동월(89,494농장) 대비 0.28%(252농장) 감소, 전월(89,343농장) 대비 0.11%(101농장) 감소
- 농장 당 사육두수는 38.7 두로 전년 동월(36.8 두) 대비 5.16%(1.9 두) 증가, 전월(38.0두) 대비 1.84%(0.7두) 증가

<표 1> 한우 사육 현황

(단위 : 호, 천두, %, 두)

구분	농장수	사육두수	가임암소두수	송아지두수	연령별 두수			농장당 사육두수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2016	97,498	2,810	1,346	723	792	788	1,229	28.8
2017	94,107	2,871	1,372	784	834	804	1,234	30.5
2018	92,238	2,962	1,427	899	861	825	1,276	32.1
2019	89,616	3,055	1,484	135	883	852	1,321	34.1
2020	88,879	3,200	1,550	55.5	887	901	1,412	36

구분		농장수	사육 두수	가임 암소두수	송아지 두수	연령별 두수			농장당 사육두수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2021	1월	88,933	3,189	1,545	58.2	888	906	1,395	35.9
	2월	88,860	3,144	1,523	65.1	872	914	1,358	35.4
	3월	89,003	3,162	1,525	79.7	825	916	1,420	35.5
	4월	89,295	3,208	1,525	131.5	793	922	1,492	35.9
	5월(A)	89,494	3,298	1,529	142.5	822	926	1,542	36.8
	6월	89,576	3,344	1,557	123.8	842	930	1,571	35.4
	7월	89,617	3,388	1,589	101.7	871	932	1,585	37.8
	8월	89,658	3,422	1,618	88.7	889	935	1,597	38.2
	9월	89,678	3,416	1,627	77.9	908	938	1,570	38.1
	10월	89,645	3,398	1,627	67.2	914	944	1,540	37.9
	11월	89,657	3,395	1,634	62.7	922	950	1,522	37.9
	12월	89,720	3,385	1,634	59.7	926	955	1,504	37.7
2022	1월	89,559	3,368	1,626	61	928	960	1,480	37.6
	2월	89,378	3,318	1,607	58.2	905	962	1,451	37.1
	3월	89,378	3,342	1,612	44.1	856	970	1,515	37.4
	4월(B)	89,343	3,394	1,610	87.7	834	974	1,586	38.0
	5월(C)	89,242	3,456	1,614	89.5	848	975	1,623	38.7
증감률	전년동월(C/A)	0.05	5.80	5.57	△33.31	5.17	5.64	6.30	5.85
	전월(C/B)	△0.04	1.56	△0.12	98.87	△2.57	0.41	4.69	1.60

자료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2. 한우 등급판정 동향

☑ 4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월 대비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4월 한우 등급판정두수는 68,170두로 전월(64,632두) 대비 5.5%(3,538두) 증가, 전년 동월(62,517두) 대비 9.0%(5,653두) 증가
 - 성별비율은 암소 48.2%, 수소 0.8%, 거세우 51.0%
 - * 전월대비 : 암소 2.7%p↑, 수소 0.1%p↑, 거세우 2.8%p↓, 거세율 0.2%p↓

<표 2> 한우 성별 등급판정두수

(단위 : 두, %)

구분	계	암	수	거세	수소거세율
전년누계	260,809	116,930	3,287	140,592	97.7
(‘21.1.~4월)	100.0	44.8	1.3	53.9	
금년누계	272,212	122,139	2,332	147,741	98.4
(‘22.1.~4월)	100.0	44.9	0.9	54.3	

구분	계	암	수	거세	수소거세율
전년동월	62,517	29,835	641	32,041	98.0
(‘21.4월)	100.0	47.7	1.0	51.3	
전월(‘22.3월)	64,632	29,416	444	34,772	98.7
	100.0	45.5	0.7	53.8	
당월(‘22.4월)	68,170	32,846	526	34,798	98.5
	100.0	48.2	0.8	51.0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4월 한우 등급판정 결과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 74.4%, 전월 대비 감소,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4월 1등급 이상 등급별 출현율은 1++등급 24.8%, 1+등급 24.9%, 1등급 24.6%
 -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은 전월(75.1%) 대비 0.7%p↓, 1++등급 0.4%p↓, 1+등급 0.5%p↓, 1등급 0.2%p↑
 - 전년 동월(73.6%)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0.8%p↑, 1++등급은 2.8%p↑, 1+등급 0.8%p↓, 1등급은 1.3%p↓
 - 전년 누계(74.7%)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0%p↑, 1++등급은 2.9%p↑, 1+등급은 0.5%p↓, 1등급은 1.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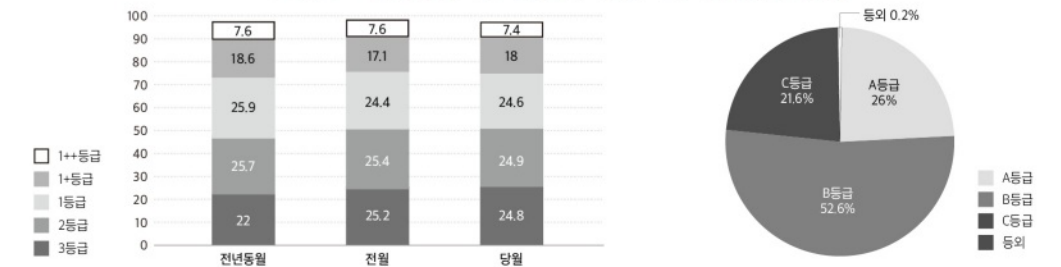
<표 3> 한우 등급별 출현율 추이

(단위 : 두, %, %p)

구분		판정두수	육질등급						육량등급			등외
			1++	1+	1	소계	2	3	A	B	C	
2016		737,476	9.6	30.4	29.4	69.3	22.8	7.6	22.9	47.2	29.6	0.2
2017		742,536	10.1	33.3	28.7	72.1	20.3	7.4	21.2	47.1	31.4	0.3
2018		736,354	12.2	30.4	30.4	72.9	19.4	7.3	20.5	47.6	31.7	0.3
2019		765,297	15.7	28.3	29.9	74.0	18.6	7.1	20.7	48.2	30.8	0.3
2020		762,749	22.5	25.5	26.1	74.1	18.2	7.4	25.0	50.5	24.2	0.3
2021		794,238	23.8	25.8	25.3	74.9	17.5	7.3	24.4	52.4	23.0	0.3
2021	4월(A)	62,517	22.0	25.7	25.9	73.6	18.6	7.6	24.4	52.1	23.3	0.3
	1~4월(B)	260,809	22.8	26.1	25.8	74.7	17.8	7.2	23.5	51.7	24.6	0.3
2022	'21.3월(C)	64,632	25.2	25.4	24.4	75.1	17.1	7.6	24.0	52.6	23.2	0.3
	4월(D)	68,170	24.8	24.9	24.6	74.4	18.0	7.4	25.6	52.6	21.6	0.2
	1~4월(E)	272,212	25.7	25.6	24.4	75.7	17.0	7.1	24.1	52.4	23.3	0.2
전월대비(D-C)		3,538	△0.4	△0.5	0.2	△0.7	0.9	△0.2	1.6	0.0	△1.6	△0.1
전년동월대비(D-A)		5,653	2.8	△0.8	△1.3	0.8	△0.6	△0.2	1.2	0.5	△1.7	△0.1
전년누계대비(E-B)		11,403	2.9	△0.5	△1.4	1.0	△0.8	△0.1	0.6	0.7	△1.3	△0.1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그림 2>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좌) 및 육량 등급 출현율(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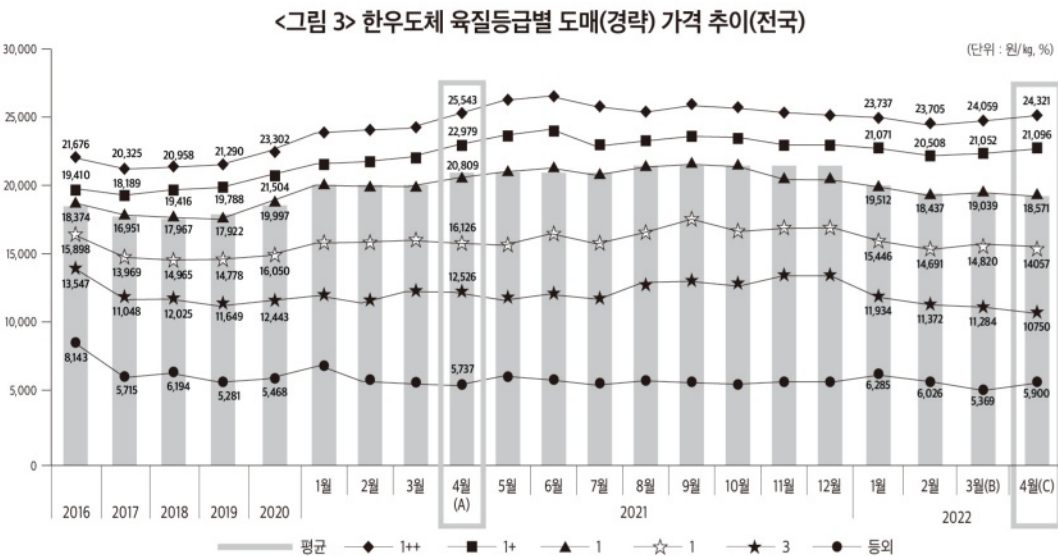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3. 한우 도매 및 산지가격 동향

☑ 4월 한우 평균 도매가격 전월 대비 및 전년 동월 대비 하락

- 4월 1등급 기준 도매가격(18,571원/kg)은 전월(19,039원/kg) 대비 2.5%(468원/kg) 하락, 전년 동월(20,809원/kg) 대비 10.8%(2,238원/kg) 하락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9,312원/kg)은 전월(19,623원/kg) 대비 1.6%(311원/kg) 하락, 전년 동월(20,926원/kg) 대비 7.7%(1,614원/kg)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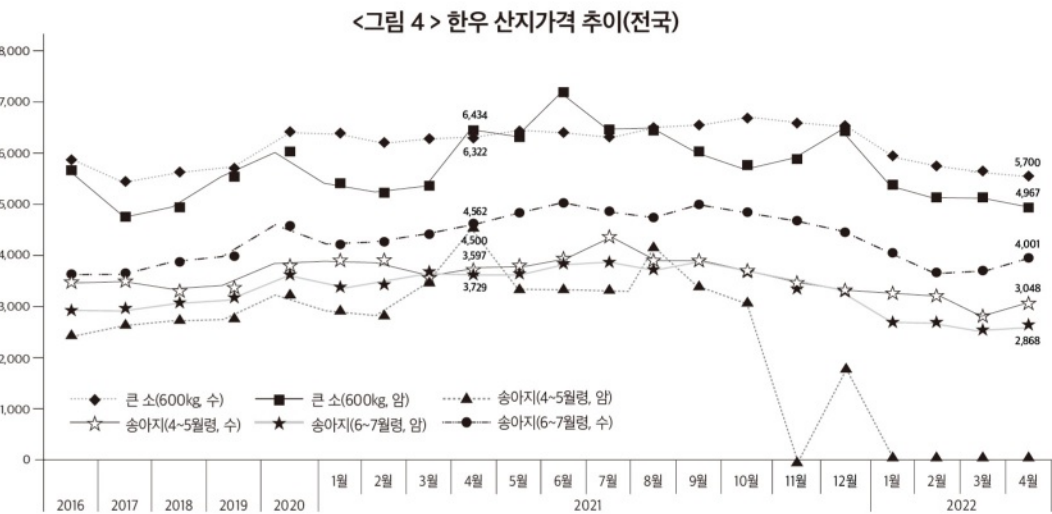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구분		1++	1+	1	2	3	등외	평균
2016		21,676	19,410	18,374	15,898	13,547	8,143	18,116
2017		20,325	18,189	16,951	13,969	11,048	5,715	16,719
2018		20,958	19,416	17,967	14,965	12,025	6,194	17,772
2019		21,290	19,788	17,922	14,778	11,649	5,281	17,965
2020		23,302	21,504	19,997	16,050	12,443	5,468	19,891
2021	4월(A)	25,543	22,979	20,809	16,126	12,526	5,737	20,926
2022	3월(B)	24,059	21,052	19,039	14,820	11,254	5,369	19,623
2022	4월(C)	24,321	21,096	18,571	14,057	10,750	5,900	19,312
증감율	전년동월(C/A)	△4.8	△8.2	△10.8	△12.8	△14.2	2.8	△7.7
	전월(C/B)	1.1	0.2	△2.5	△5.1	△4.7	9.9	△1.6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4월 한우 산지가격 큰소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송아지(6~7개월령) 전월 대비 상승, 전년 동월 대비 하락

- 4월 큰소(600kg) 산지가격은 암소의 경우 5,600천 원으로 전월(5,701천원) 대비 1.8%(101천원) 하락, 전년 동월(6,322천원) 대비 11.4%(722천원) 하락
 - 수소의 경우 4,967천원으로 전월(5,154천원) 대비 3.6%(187천원) 하락, 전년 동월(6,434천원) 대비 22.8%(1,467천원) 하락
- 4월 송아지(6~7개월령) 산지가격은 암송아지의 경우 2,868천원으로 전월(2,735천원) 대비 4.9%(133천원) 상승, 전년 동월(3,729천원) 대비 23.1%(861천원) 하락
 - 수송아지의 경우 4,001천원으로 전월(3,683천원) 대비 8.6%(318천원) 상승, 전년 동월(4,562천원) 대비 12.3%(561천원) 하락



자료 :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주 : 2020년 송아지(4~5월령)의 경우 3월과 5월은 코로나로 인한 가축시장 임시폐쇄로 가격자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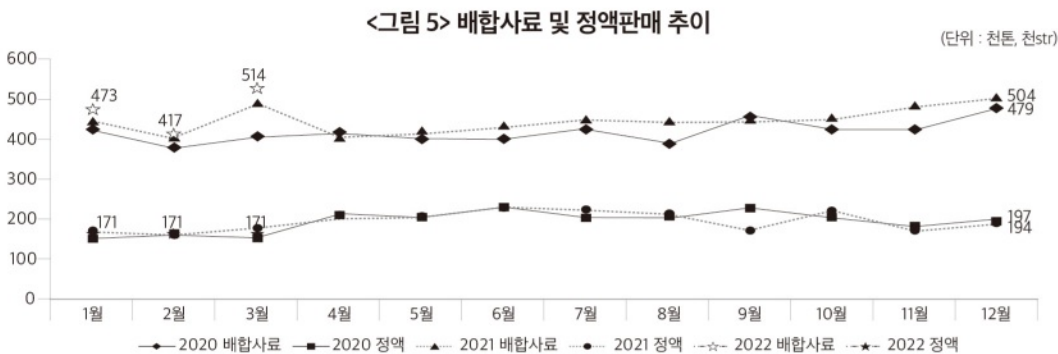
구분		큰소(600kg)		송아지(4~5월령)		송아지(6~7월령)	
		암	수	암	수	암	수
2016		5,816	5,650	2,465	3,485	2,900	3,550
2017		5,406	4,733	2,612	3,444	2,919	3,572
2018		5,599	4,911	2,725	3,272	3,118	3,841
2019		5,646	5,476	2,790	3,394	3,212	3,930
2020		6,114	5,446	3,060	3,711	3,435	4,295
2021	1월	6,372	5,372	2,990	3,877	3,402	4,196
	2월	6,209	5,207	2,880	3,891	3,436	4,263
	3월	6,263	5,348	3,500	3,641	3,594	4,328
	4월(A)	6,322	6,434	4,500	3,597	3,729	4,562
2022	1월	6,026	5,370	-	3,329	2,864	3,842
	2월	5,882	5,148	-	3,198	2,862	3,640
	3월(B)	5,701	5,154	-	2,893	2,735	3,683
	4월(C)	5,600	4,967	-	3,048	2,868	4,001
증감율	전년동월(C/A)	△11.4	△22.8	-	△15.3	△23.1	△12.3
	전월(C/B)	△1.8	△3.6	-	5.4	4.9	8.6

자료 :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4. 배합사료 생산 및 한우정액 판매 동향

☑ 2022년 4월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동기(406천 str) 대비 증가 한우 정액판매량 전년 동기(183천 str) 대비 감소

- 4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418천 str으로 전년 동기(406천 str) 대비 3.0% (12천 str) 증가
- 4월 한우 정액판매량은 171천 str로 전년 동기(183천 str) 대비 6.6% (12천 str) 감소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표 6〉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단위 : 천톤, 천st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배합사료	2020	426	384	412	414	404	402	427	390	457	428	430	479	5,053
	2021	442	406	490	406	423	435	451	444	451	453	482	504	5,387
	2022	473	417	514	418									1,822
정액	2020	157	168	155	213	207	231	207	211	227	205	186	194	2,361
	2021	172	162	179	209	209	233	226	214	183	220	170	197	2,374
	2022	171	171	183										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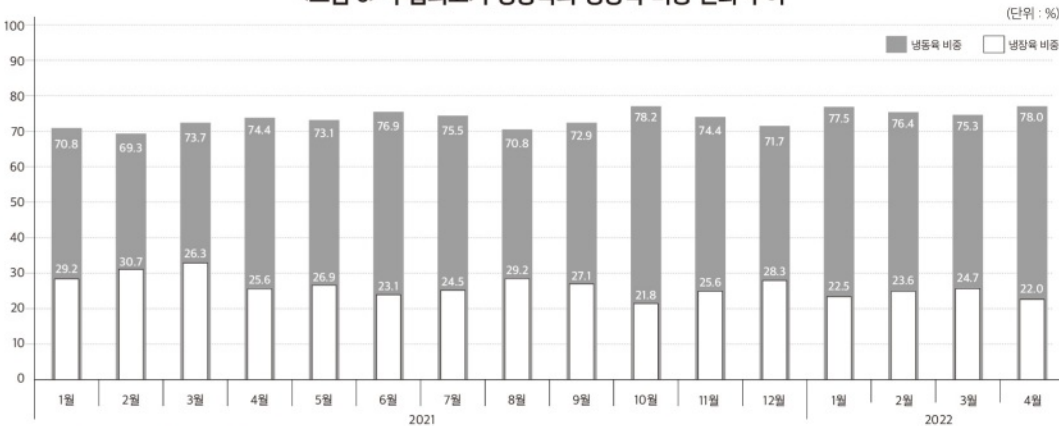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5. 쇠고기 수입현황

☑ 2022년 4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8.9%(3,571톤)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0%(1,140톤) 감소

- 4월 쇠고기 수입량은 3만 6,355톤으로 전월 39,926톤 대비 8.9%(3,571톤) 감소, 전년 동월 3만 7,495톤 대비 3.0%(1,140톤) 감소
 - 전월 대비 냉장 및 냉동 쇠고기 각각 19.1%(1,888톤), 5.6%(1,683톤) 감소
- 4월 부위별 쇠고기 수입물량은 전월 대비 등심 13.8%(472톤), 양지 10.8%(900톤), 갈비 0.4%(59톤), 앞다리 5.1%(218톤) 감소
- 4월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미국산이 11.7%(2,802톤) 감소, 호주산이 16.6%(1,967톤) 감소, 기타 국가에서 28.8%(1,198톤) 증가

〈그림 6〉 수입쇠고기 냉동육과 냉장육 비중 변화 추이



자료 : 수입축산물 부위별 검사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표 7〉 쇠고기 수입 추이

(단위 : 톤, %)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15		297,265	245,952	51,313	115,460	38,582	31,404	42,826	68,993	112,431	164,063	20,771
2016		361,531	301,219	60,312	133,197	35,049	45,295	50,001	97,989	153,181	177,530	30,820
2017		344,271	265,665	78,606	142,659	37,517	42,648	39,031	82,416	168,502	149,935	25,834
2018		415,685	326,531	89,154	151,933	53,737	54,270	55,595	100,150	219,769	167,454	28,462
2019		426,626	339,240	87,386	164,792	57,444	53,881	49,849	100,660	237,624	163,158	25,844
2020		419,469	321,646	97,823	161,018	54,616	54,937	44,522	104,376	228,686	158,293	32,490
2021	1월	34,626	24,503	10,123	11,799	5,164	4,810	3,112	9,741	17,111	14,676	2,839
	2월	26,774	18,547	8,227	10,308	4,057	3,688	2,263	6,458	18,797	5,585	2,392
	3월	41,272	30,406	10,866	13,090	7,874	5,548	4,256	10,504	21,154	16,657	3,461
	4월(A)	37,495	27,888	9,607	13,334	5,640	4,848	3,744	9,929	20,470	13,298	3,727
	5월	39,815	29,116	10,699	12,337	5,640	5,240	4,426	12,172	20,794	16,220	2,801
	6월	36,991	28,430	8,562	12,020	5,384	4,740	3,642	11,205	23,288	11,009	2,694
2021	7월	38,455	29,032	9,423	13,073	3,978	5,279	2,681	13,444	21,096	14,516	2,843
	8월	37,402	26,487	10,915	14,018	4,247	4,930	4,146	10,061	24,686	9,681	3,035
	9월	38,746	28,247	10,499	12,976	4,919	5,486	5,043	10,322	22,435	13,205	3,106
	10월	42,494	33,249	9,244	15,505	5,723	5,488	5,144	10,634	24,630	13,952	3,912
	11월	39,704	29,544	10,161	12,394	6,475	5,737	4,630	10,468	18,309	17,846	3,549
	12월	39,018	27,963	11,055	12,627	6,230	4,831	3,861	11,469	22,104	13,472	3,442
누계		452,792	333,412	119,381	153,481	65,331	60,625	46,948	126,407	254,874	160,117	37,801
2022	1월	39,218	30,375	8,843	12,121	7,403	5,285	3,964	10,445	15,987	17,969	5,262
	2월	34,349	26,232	8,117	13,150	6,485	4,737	2,640	7,337	22,977	8,291	3,081
	3월	39,926	30,050	9,876	14,508	8,339	4,291	3,412	9,376	23,943	11,821	4,162
	4월(B)	36,355	28,367	7,988	14,449	7,439	4,073	2,940	7,454	21,141	9,854	5,360
	누계	113,493	86,657	26,836	39,779	22,227	14,313	10,016	27,158	62,907	38,081	12,505
증감률	전년동기(B/A)	△3.0	1.7	△16.9	8.4	31.9	△16.0	△21.5	△24.9	3.3	△25.9	43.8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축산물 검사실적 순기보'



우크라이나, 계속되는 분쟁으로 사료 수급 우려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세계 농업과 식량에 대한 영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육류 수출 협회 경제 분석 부사장 에린 보로(Erin Borrer)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식량보다 사료 수급이라고 언급하였음

- 쇠고기 측면에서 수출 정체
 -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벨라루스를 합하여 약 6만 톤의 쇠고기 수출이 정체
- 사료 측면의 수출의 정체
 - 우크라이나 : 제3위 옥수수 수출국, 제1위 해바라기 수출국, 제5위 밀 수출국
 - 러시아 : 가장 큰 밀 수출국
 -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연합(EU)의 옥수수, 보리, 밀 수입량의 약 40%를 공급하고, 중국 같은 경우 동일 수입품의 약 23%를 공급함
- 사료 수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럽의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할 수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물복지 및 환경 규제 등의 영향으로 인한 두수 감소도 영향이 있었지만, 분쟁으로 인해 지난 한달 동안 유럽 돼지 가격이 35%나 상승함

에린 보로는 “지금 심어야 한다”라고 피드백을 하였으며, 전쟁에 의한 영향은 최소 내년 혹은 향후 2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 사료 수급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이유는 현재 정제된 재고물량 뿐만 아니라, 현재 재배되고 있거나 앞으로 심어져야 할 사료 원료의 수출 여부임
- 이외 인프라 손상, 개발도상국 인플레이션 영향, 식량 수급 및 가격, 등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임

자료 : National Hog Farmer, 출처: U.S. Meat Export Federation (22.04.27.)

미국, 대장균 문제로 쇠고기 분쇄육 리콜 사태

미국 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4월 25일, 대장균이 검출된 쇠고기 분쇄육에 대한 리콜 조치를 단행

- 이번 사태를 통해 리콜된 물량은 약 12만 872파운드의 쇠고기 분쇄육 및 관련 제품
 - 이를 톤으로 환산하면 55톤 수준으로, 약 48만개의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물량
- USDA의 검사 및 생산 날짜 표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이며, “EST. 46841” 코드를 부여받음
 - 토마스 팜스(Thomas Farms), 네이처스 리저브(Nature's Reserve), 마켓사이드 부처(Marketside Butcher), 다지마(Tajima), 에스이취(SEG), 웨이스

(Weis), 홀푸즈(Whole Foods), 월마트(Walmart), 타겟(Target), 윈딕시(Winn-Dixie) 등의 업체 제품이 해당됨

- USDA FSIS의 검사 도중 대장균 E. coli O103이 검출되었음

FSIS에 따르면, 균을 섭취한 후 평균 3~4일 동안 설사와 구토를 포함한 증상이 지속될 수 있음

- 이외 증상으로 쉽게 멍이 드는 증상, 창백해지는 증상, 소변량 감소, 신부전증 등 심각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응급 치료받아야 한다고 전달

자료 : Forbes (22.04.27.)

세계 쇠고기 시장, 소비자 수요 지속적 강세

퀄리티 미트 스코틀랜드(Quality Meat Scotland, QMS) 선임 경제학 분석가인 이안 맥도날드(Iain Macdonald)는 올해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쇠고기의 기록적인 농가문전 판매가격(farm gate prices)이 나타났으며, 그 결과로 세계 시장에서 쇠고기는 더욱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

- 최신 쇠고기 시장 논평(EU, 4월 마지막 주 기준)
 - 스코틀랜드의 R4L 거세우(steer) 가격은 £4.48/kg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1년 최고가를 갱신한 동기와 비교 했을 때 3.5% 더 높은 가격임(동기 5년 평균보다 약 18% 높은 수준을 유지)
 - 독일의 어린 수소(young bull) 가격은 £4.75/kg, 폴란드는 £4.40/kg, 아일랜드 거세우 가격은 £4.15/kg에 도달하였으며, EU 전역에서 평균 R3 등급 어린 수소 가격은 최근 몇 주 동안 작년에 비해 약 35% 상승
 - 거세우 기준 미국은 £4.00/kg, 브라질 상파울루 지역은 £3.30/kg을 넘어 작년에 비해 20% 이상 상승
 - 중국에서 도매가격은 쇠고기 £9.50/kg, 양고기 £8.50/kg, 돼지고기 £2.50/kg로 나타나 코로나바이러스의 제한으로 인해 수출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미의 주요 쇠고기 공급업체에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맥도날드는 “EU 쇠고기 시장은 2021년 하반기 이후 쇠고기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 무역수지의 큰 변화와 같은 명백한 시장 신호 없이 특히 강세를 보였다”며 “결과적으로, 경제가 재개되고 사람들이 다시 외식하기 시작하면서 확고한 수요가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

- 연간 OECD-FAO 세계 농업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은 쇠고기가 여전히 매우 인기가 높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2021~2030년 전망은 수요가 향후 10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이라 결론지었음

자료 : The cattle site (22.05.12.)

쇠고기 지방, 항공기 연료 사용으로 탄소배출 감축

미국 콜로라도주 베일밸리 제트센터(Vail Valley Jet Center)에서 사용하는 수지 기반 연료는 개인 또는 상업용 제트기의 탄소 배출량을 25%까지 줄일 수 있다고 언급

- 미국 콜로라도주 이글 카운티 리저널 공항(Eagle County Regional Airport)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높은 비율의 우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3월부터 도입하였음
 - 연료는 지방유래 바이오 연료 30%와 기존 제트 등유 70%로 구성됨
 - 바이오 연료의 원료는 우지 이외에도 제분소 폐기물, 폐식용유, 조류(algae), 도시 및 농업 하수 등에서 정제됨

로키 마운틴 연구소(Rocky Mountain Institute, RMI) 및 전문 분석가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배출량의 3~9%를 차지하는 항공 산업에서 수지 또는 재생 원료로 만든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의 사용이 온실 가스를 줄이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

- 항공은 완고한 탄소 산업으로 간주되고 있고, 현재까지 어떤 다른 에너지원도 무거운 항공기를 지상에서 내리는데 필요한, 제트 연료의 중량 대비 출력 비율을 갖고 있지 않음
-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항공기가 개발 중이지만,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함
- 바이오 연료의 생산에 있어 기존의 화석 연료 추출 및 정제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화석 연료의 30% 이상을 폐기물로 대체함
- RMI는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수익성 있는 지속 가능성 분야의 연구, 출판, 컨설팅 및 교육사업 수행 조직

자료 : Iowa Farmer Today (22.05.10.)



한우마당

전국한우협회 회원 소식지 「한우마당」은 매달 발행되는 월간지입니다.
「한우마당」 대한민국 전체 한우 사육두수 약 70%에 달하는 협회 회원과
전후방업계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연간 15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양질의 정보는 물론, 축산관련 잡지 중
가장 많은 구독부수로 높은 전파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광고문의

- 1) 광고 문의 및 접수: 025251053@daum.net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월간 한우마당」 매체 소개 및 광고신청 안내 참고)
- 2) 광고규격: 188mm×257mm / 내부여백 7~10mm 필요
- 3) 광고금액: 홍보팀 문의 (장기계약 우대)
* 「한우마당」 광고업체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홍보관 메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요 배부처 및 일정

- 1) 협회 대의원 및 임원 등 지도자, 전국 지회·지부, 일반 회원농가
- 2)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국 각 지자체 축산과
- 3) 전국 수의대학 및 동물생명, 축산학과, 특성화 대학 등
- 4) 전국 농축협 및 관련 유관기관, 한우협동조합, 전문지 언론사
- 5) 사료 기자재 등 한우마당 광고업체

매월 20일

원고 및 광고시안 마감



전국한우협회



2022. 06
vol. 187

구독안내

「한우마당」은 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전국한우협회 홍보팀으로
문의주십시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 02-525-1053, 내선 202 또는 218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https://www.ihanwoo.org>
한우마당 뉴스 웹진
<http://www.ihanwoo.kr>

제 23권 제6호(통권 187호)

2022년 6월 15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김삼주

편집 김재광

광고 이기찬

제작 팜커뮤니케이션

발송 자산포스트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2층

전화 02.525.1053 / 02.597.2377

팩스 02.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인터넷 한우마당 www.ihanwoo.kr

한우협회 누리집 www.ihanwoo.org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전국한우협회